A TRAINING PROGRAM FOR FATHERS
BASED ON THE IMAGE OF A GENDER-EQUALITY-ORIENTED FATHER
양성평등적 아버지상을 기초로 한 아버지 훈련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A Dissertation

Presented to

the Faculty of

Claremont School of Theolog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Doctor of Ministry

By

Hee Soo Kim

May 2016

This dissertation completed by

Hee Soo Kim

has been presented to and accepted by the
faculty of Claremont School of Theolog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of the

DOCTOR OF MINISTRY

Faculty Committee

Samuel K Lee

NamSoon Kang

Dean of the Faculty

Sheryl A. Kujawa-Holbrook

May 2016

ABSTRACT

OVERCOMING PARTRIACHAL CULTURE IN THE KOREAN CHURCH:

A TRAINING PROGRAM FOR FATHERS

BASED ON THE IMAGE OF A GENDER-EQUALITY-ORIENTED FATHER

by

Hee Soo Kim

This project creates a training program for fathers based on the image of a gender-equality-oriented father. Today, the Korean church faces the negative consequences of the combination of Confucian and Christian patriarchal cultures leading to an unhealthy partirchal culture in Korea and the Korean church. Under the influence of this patriarchal culture, most Korean Christian fathers have played an unhealthy patriarchal role in their families. This study aims, first, to help Korean fathers overcome this patriarchal culture and, second, to create a new healthy image of a gender-equality-oriented father and a training program based on this image to build up healthy Korean families

This project critically reflects on the patriarchal properties of the Korean Confucian culture and Korean Christianity and examines the meanings and values of gender equality in Korea. This project broadly studies the theoretical basis of gender equality from theological and ecclesiological perspectives. This project also presents the efforts of scholars and activists for gender equality and provides suggestions for the future of gender equality in the Korean church. On the basis of this theoretical research, this project suggests that equality,

participation, cooperation, and relationship are the four principles necessary to create a new, healthy image of a gender-equality-oriented father and constructs a four-week program that helps participants learn about the image of the gender equality-oriented father and practice this new role.

The program helps fathers to developa sense of gender equality and understanding of gender discrimination in Korean patriarchal culture, and help them come to accept diversity in gender roles. The program also aims to help fathers encourage their spouses to reach self-realization in society, to create a mutual cooperation with spouses in family and social matters, and to make a relationship of equality to communicate and to maintain intimacy with their family members.

Keywords: Patriarchy, Gender Role, Image of Father, Gender Equality, Participation, Cooperation, Relationship

SUMMARY

The Confucian tradition still exists and has strong influence in Korean society. The Three Bonds and Five Relationships in Confucianism have become the basis for Korean patriarchal culture. Korean patriarchy has allowed men to dominate and oppress women and implanted the hierarchical, male-centered, and chauvinistic Confucian culture in Korean society.

Combined with patriarchal tendencies in traditional Christianity, Korean patriarchy and the patriarchal system of Korean society have been strengthened and justified in the Korean church. The Korean church has misinterpreted the Bible and developed male-centered theology that teaches hierarchy and patriarchy are the Will of God. The Korean church therefore has participated in oppression and discrimination in the church and Korean society.

As a male victim of the hierarchy and patriarchy of the Korean church and culture, in order s to liberate himself and Korean fathers from this oppression, the writer develops theological basis and a training program based on a new image of a gender-equality-oriented father for Korean males, especially to benefit Korean females who have been oppressed and marginalized under this patriarchal system. Korean fathers must recognize the unfair structure of the Korean patriarchal culture and transform themselves to build up a renewed relationship with their families and to encourage their spouses to enjoy equality and freedom in family and society.

Humans -- fe/males -- should not be discriminated against due to gender. Humans have dignity and rights by nature. Humans have the right to freedom and should

enjoy equality, independence, and a self-direction. All Korean church communities should become agents to transform the patriarchal structure and realize gender equality.

This project conducts research to develop biblical, theological and ecclesiological resources as a foundation for gender equality to lead Korean fathers to a rediscovered Christian tradition through which Korean Christians realize the irrationality and violence of the Korean Christian patriarchal tradition.

Genesis 1:26 – 27 states that both male and female are made in the image of God and with the same dignity, and this principle for gender equality is found in these verses. In Jurgen Moltmann's concept of the social Trinity and *perichoresis*, this study uses mutual equality, cooperation, and relationship as the theological foundation for gender equality. Furthermore, Rosemary Ruether's concept of Women-Church as a community liberated from patriarchy offers an ecclesiological case for gender equality.

The Korean church should incorporate these theological foundations for gender equality through establishing laws and systems and creating a professional organization, such as an equality commission. Such laws, systems, and organization can enhance a sense of equality, educate Christians, and train women leaders who have been marginalized by church leadership. With this theological basis and aims, this project examines the four principles of equality, participation, cooperation, and relationship in order to study the roles of Korean fathers to promote gender equality in the Korean church. This project creates a training program for gender equality that helps Korean Christian fathers understand and emulate the image of a gender-equality-oriented father. The project also analyzes and complements the existing programs for fathers and suggests a new model for fathers and gender equality.

목차

TABLE OF CONTENTS

I. 서론

A.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보면 성 차별적인 언어와 용어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여자가 울면 3년간 재수가 없다'; '여자 셋이 모이면 접시가 깨진다': '여자 목소리가 담장을 넘으면 안 된다' 등의 한국 속담들이 있다. 또한 '김여사(운전을 못하는 여성)', '김치녀(금전적으로 남성에게 의존하려는 여성)', '된장녀(분수에 넘치게 사치하는 여성)' 등 여성 비하의 의도를 지닌 용어가 흔히 사용되고 있다. 반면 '남자는 남자다워야 해,' 또 '여자는 여자다워야 해,' 같은 성 고정관념을 드러내는 표현들이 사용되고 있으며 '남자가 그런 것도 못해?', '남자는 울지 않는다' 등 남성 차별적 표현들도 흔히 사용하고 있다.[1]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성 차별의 문화는 어디서 시작되어 고착화 되었을까? 강남순은 "성차별의 뿌리를 유교적인 가부장적인 문화, 특히 남성 우월주의에 있다"고 하였다.[2] 이러한 남성중심의 가부장적인 문화는 남과 여를 차별하고 여성을 비하하며 억압하는 형태로 한국 사회에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한국 사회의 뿌리 깊은 가부장적인 유교 문화의 전통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

[1] 여성가족부, "위민넷 양성평등 함께 지켜요! 국민제안분석," Sep 25, 2015. http://enews.mogef.go.kr/view/board/bbs/view.jsp (Accessed Oct. 11, 2015).
여성가족부는 2015년 7월 1일 양성평등기본법 시행을 계기로 7월 한 달 간 우리 일상 속의 성차별적 요소와 성별 고정관념을 생각해 보고 의미있는 실천을 위해 양성평등실현을 위한 국민 제안 이벤트 결과를 발표했다. 총 450건의 다양한 제안을 내놓았으며 이 가운데 성을 비하하거나 성별 고정관념의 표현을 담은 속담이나 용어를 더 이상 사용하지 말자는 제안이 57.8%(260건)로 가장 많았다. 유형별로 보면, 속담/용어 260건, 생활 79건, 직장/직업 50건, 교육 15건, 기타 46건으로 집계되었다. 여성가족부는 국민들의 제안 결과를 보다 널리 알리고 확산시켜 우리 사회 성차별적 요소를 시정하고 양성평등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국민 실천을 이끌 것이라고 하였다.

[2] 강남순, *페미니즘과 기독교*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8), 106.

유교는 예(禮)를 중심으로 하는 삼강오륜(三綱五倫))의 덕목을 가부장제의 기초를 삼았다. 이러한 가부장제는 가정에서 남성인 남편이 여성인 아내를 지배하고 차별하는 형태로 자리잡아 왔다. 특히 공자의 음양오행설의 주술적인 우주관은 음양의 이원론적이고 수직적인 질서를 강요하였다. 그리하여 여성들이 예를 실천하는 과정에 '칠거지악(七去之惡)'이나 '삼종지도(三從之道)', '재가녀자손금고법(再嫁女子孫禁錮法)' 등의 내용을 포함시키고 강조함으로써 여성들을 제약하고 억압하였다.[3]

또한 강남순은 유교의 가부장제는 "가장인 아버지가 가정을 다스려야 한다는 미명 아래서 가정을 사적인 영역으로 규정하여 외부에서 관여를 차단함으로 가정에서 아버지의 지배를 더욱 강화하였다"고 하였다.[4] 이러한 유교적인 가치관은 결국 위계적이고 남성중심의 우월적인 사상의 토대를 만들었던 것이다. 이러한 체제는 결국 여성을 차별하여 여성에게 불평등한 구조를 형성하게 하였다.

나아가 유교적인 가부장제와 더불어 기독교의 가부장적인 요소들이 서로 융합되어 한국 사회와 기독교회 안에서 가부장적인 질서가 정당화되고 더욱 강화되는 형태로 나타났다. 특히 나는 성서의 가부장적인 배경 아래서 행해진 잘못된 해석과 가부장적이고 남성중심적인 신학적 이해를 비추어 볼 때, 가부장적인 질서가 마치 하나님이 뜻과 질서인 것처럼 무비판적으로 교회에서 수용되었다는 사실을 부인하기

[3] 이은선, *유교 기독교 그리고 페미니즘* (서울: 지식산업사, 2003), 129. 칠거지악은 여자에게 일곱 가지 내칠 수 있는 것이 있으니 시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내치고, 아들이 없으면 내치며, 음행을 하면 내치고, 투기를 하면 내치며, 나쁜 질병이 있으면 내치고, 말이 많으면 내치며, 도둑질을 하면 내친다. 삼종지도는 여자가 어릴 때는 부모를 따르고, 출가해서는 남편을 따르고, 노후에는 아들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재가녀자손금고법은 조선 성종16년에 재정된 것으로 어머니가 재혼하면 그 자식은 아들과 손자, 서얼의 자손은 문과와 생원, 진사시에 응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4] 강남순, *페미니스트 신학*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2002), 249.

어렵다고 생각한다. 이로 인하여 가정과 교회에서 여성을 차별하고 억압하는 것이 정당하고 당연하게 받아들여 진 것이다.

그러므로 본 프로젝트를 통해 이러한 한국의 유교적 가부장적인 문화와 기독교의 가부장적인 요소들로 인하여 왜곡되어 불평등한 차별을 받은 여성과 가부장제의 가해자이면서 동시에 피해자로서 남성에 대한 회복을 위해 양성평등의 원리를 기초로 한 아버지상을 연구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유교적이고 기독교적인 가부장적인 아버지상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통하여 양성평등적인 아버지상을 정립하고 그 원리에 따른 훈련을 통해서 오늘날 시대에 맞는 건강한 아버지를 세우는데 그 목적이 있다.

B. 연구의 방법론

1. 실천신학의 중심과제의 4가지 틀

본 연구의 방법론으로 먼저 리차드 오스머(Ricahard Osmer) 실천신학의 중심 과제인 4가지 과제의 틀을 가지고 수행하려고 한다.[5] 오스머는 새로운 실천신학의 개념을 4가지 과제로 분류하였는데 경험적-서술적 과제(Experiential-Descriptive Task), 해석적 과제(Interpretive Task), 규범적 과제(Normative Task), 그리고 실용적 과제(Practical Task)이다.[6] 경험적-서술적 과제는 지금 교회와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특정한 상황과 정황, 그리고 사건들 속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에 대한 정확한 상황을

[5] 본 연구는 양성평등적인 아버지 훈련이라는 실천신학적 과제에 따른 것으로 오스머가 제안한 4가지 과제를 활용함으로 최종적으로 제시된 방안들이 신학적, 성서적 이론의 근거에 의해 실천된다는 것을 밝힌다.

[6] Richard Osmer, *Practical Theology: Introduction 실천신학의 4가지 중심과제,* trans. 김현애 (서울: WPA, 2012), 27-38.

파악하고 정보를 수집하는 단계이다. 이를 기초로 해석학적 과제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사회역사적 관점과 심리학적 관점에서 분석하여 어떤 패턴과 역학이 발생하는지 분석한다. 그 원인을 찾기 위해 다른 학문의 이론을 참고한다. 이렇게 해석학적인 단계를 거친 다음에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물어보는 규범적 과제의 단계에 이른다. 이에 대한 대답을 찾기 위해 성서적, 역사적, 신학적 관점에서 해석하고 그 과제를 이루어 간다. 그리고 세워진 규범을 가지고 어떻게 삶에서 실천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과 훈련을 제시하면서 실용적 과제를 이루어 간다.

이 방법론을 토대로 오늘날 기독교 가정과 교회 안에서 가부장적인 요소들로 인하여 어떤 차별과 고통이 있었는지를 살펴보고, 이러한 사실에 근거해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분석하고, 그리고 양성평등을 위한 원리와 근거를 찾고, 나아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연구한다. 그리고 양성평등을 어떻게 적용하고 실천할 것인지 대안을 제시하는 방법론의 틀을 사용할 것이다.

2. 문헌 연구

최근까지 연구된 문헌과 논문, 그리고 각종 자료들을 통하여 문화적, 역사적, 사회적 유교의 가부장제의 영향 아래 성차별과 여성에 대한 억압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고찰하였다. 또한 기독교의 가부장적인 요소들을 성서적, 교회사적으로 가부장제가 신학적인 요인들과 결합하여 기독교회 안에서 어떻게 영향을 미쳤으며 그러한 결과로 인하여 교회 안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과 불평등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고찰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양성평등의 인식론적인 근간을 이루는 이론적 기반을 정립하기 위해 양성평등에 대한 성서적, 신학적, 교회론적인 이해를 고찰하였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동등성 개념을 양성평등을 지지하는 성서적 기초이자 근거로 삼았다. 또한 위르겐 몰트만(Jurgen Moltmann)의 사회적이고 관계적인 삼위일체론을 상호 관계적이고 보완적인 관계 안에서 동등성을 중심으로 하는 양성평등을 위한 신학적인 근거로 삼았다. 나아가 양성평등을 위한 교회론적인 기초로 로즈마리 류터(Rosemary R Ruether)의 여성신학과 해방적 교회론을 그 이론적인 근거로 삼았다. 류터는 교회 안에서 가부장적이고 권위적이며 위계적인 질서를 거부하고 상호 섬김과 다양성을 기초한 기능적인 교회 공동체를 제시하였다. 나는 이러한 류터의 주장이 양성평등을 위한 중요한 교회론적인 근거가 될 것이라고 평가한다.

3. 양성평등적 아버지 훈련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연구

나는 이론적인 연구를 통해서 양성평등적 아버지상의 원리를 세우고 양성평등적 아버지 훈련 프로그램을 설계하였다. 이 설계에 앞서 한국의 두란노 아버지학교의 훈련 프로그램을 선행적으로 양성평등적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양성평등적 아버지상에 기초한 아버지 훈련 프로그램을 설계하고자 한다. 양성평등적 아버지상을 형성하기 위해서 먼저 프로그램의 목적을 세우고 진행 전략을 세우며,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 등을 구성하였다.

C. 문헌자료의 평론적 검토

강남순의 저서 *페미니스트 신학*은 가부장적 신학 담론에 대한 비판적인 성찰을 담은 책이다.[7] 강남순은 이러한 가부장주의의 남성중심의 문제에 대해 단편적 접근이 아니라 다양한 관점에서 이해하려고 하였다. 왜냐하면 가부장적 제도는 단순한 문화적 현상이 아니라, 사회의 다방면에 걸쳐 복합적으고 다양하게 경험되는 현상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부장적인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형성과 재형성의 과정을 통해 자기를 비판적으로 성찰 주변부의 시각을 인식하면서 문제의 해결에 접근하려고 하였다.

강남순은 이러한 가부장적인 위계적이고 왜곡된 구조를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제시하였다. 그것은 억압과 차별이 있는 곳에 자유와 평등을 실현하는 것이다. 나는 전통적이고, 유교적이고, 기독교적인 가부장적인 문화를 극복하기 위해서 *페미니스트 신학*이 그 대안이 될 것임을 강남순의 저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강남순은 그러한 가부장적인 문화를 극복하기 위해서 먼저 가부장적이고 성차별적인 것에 대한 철저한 인식과 비판적인 사고를 통하여 성차별을 거부하고, 신학과 목회의 왜곡된 문화를 재구성하여 모든 사람이 자유와 평등한 존재임을 주장하였다.[8] *페미니스트 신학*은 여성의 해방 뿐 아니라 나아가 다양한 형태의 지배와 종속과 차별에 대한 구조에 저항하고 해방하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다.

강남순의 저서 *현대여성신학*은 본 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인식전환의 토대가 되는 책이다. *현대여성신학*은 기존 가부장적인 남성중심의 전통적인 신학에 대한

---

[7] 강남순, *페미니스트 신학*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2002).

[8] Ibid., 354.

저항으로 시작한다.[9] 강남순은 성서와 신학의 가부장적인 것을 거부하고 탈가부장주의 신학에서 벗어나 새로운 관점을 제시함으로 신학의 분야에 패러다임 전이를 추구하였다.[10] 그리하여 여성신학의 주체가 여성 뿐 아니라 흑인, 그리고 제3세계 사람들에게 확장하여 지배와 억압의 구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평등공동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강남순은 성차별적 신학을 극복하기 위해 하나님의 남성성에 대한 강조를 비판을 하였다. 로즈마리 류터는 “남성성의 강조가 ‘하나님-남성-여성’이라는 위계질서를 형성하여 성차별의 근거가 되었다”고 보았다.[11] 이를 극복하기 위해 강남순은 종교적 상징의 성을 “중성화”, 혹은 “양성화”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12] 그것은 성차별의 성서적 이미지에 대한 인식론적인 변화의 필요성을 우리에게 일깨운 것이다. 이러한 남성 중심의 하나님의 대한 상징을 바탕으로 여성차별, 인종차별, 자연의 파괴, 나아가 착취와 억압의 원인이 되었다고 강남순은 주장한다.[13]

강남순은 이러한 가부장적인 전통적인 신학을 비판하면서 평등주의적 관점에서 도교와 여성신학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14] 나아가 강남순은 “기존 가부장적인 전제와 구조를 해체를 위해서 지속적인 비판적 자기 성찰과 여성의 억압과 불평등 구조에 대한

[9] 강남순, *현대여성신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4), 107.
[10] Ibid., 292.
[11] Ibid., 276.
[12] Ibid., 123.
[13] Ibid., 124-31.
[14] Ibid., 269-72.

비판적 이론화 작업"을 이루어야 할 것을 주장한다.[15] 나는 본 저서를 통해서 기존의 가부장적인 전통 신학으로 인하여 여성들이 얼마나 차별과 고통 가운데 있었음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에 있어서 이러한 성차별의 신학을 극복하고 모두가 평등하다는 것을 기초로 한 신학의 패러다임의 전이를 가져오는 근거가 되는 책으로 평가된다.

강남순의 또 다른 저서 *페미니즘과 기독교*는 *현대여성신학* 이후 한국의 사회적 특히, 기독교적 상황에서 페미니즘과 관련되어 야기되는 주제들을 중심적으로 다룬 책이다.[16] 성차별주의적 인식과 제도를 변화시키고자 신학계와 교계의 개혁 뿐만 아니라 나아가 사회개혁을 추구하고자 하는 저자의 의지를 담고 있다. 강남순은 한국 기독교가 성숙하기 위해 커다란 장애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유교문화라고 보았다.[17] 유교와 한국 기독교가 만나면서 가부장성이 더욱 강화되었다는 것이다.[18] 이러한 두 종교의 만남을 강남순은 한마디로 "불행한 만남"으로 규정하였다.[19] 그리하여 강남순은 평등주의 관점에서 유교와 기독교의 문제를 조명함으로 성차별적인 가부장적인 문화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강남순은 특히 "한국 기독교 안에 유교적 영향을 가족주의와 교파주의, 남성우월주의와 성차별주의, 강한 현상유지적 성향과 보수주의, 그리고 유교의 원형적

---

15 Ibid., 280.
16 강남순, *페니미즘과 기독교*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8).
17 Ibid., 98.
18 Ibid., 110.
19 Ibid., 116.

역사관과 변혁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대해서 비판하였다.[20] 이를 극복하기 위해 "배제와 차별의 문화를 벗어 버리고 평등과 포괄의 문화를 형성하고, 상대화와 다원화를 인정하고, 상호 평등적인 평등공동체를 이루어야 함"을 강남순은 주장한다.[21] 본 서는 한국적인 상황에서 유교와 기독교의 가부장적인 문화가 성차별에 교회와 가정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인식할 수 있는 책으로 본 연구에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됨을 밝힌다.

이은선의 저서 *유교, 기독교 그리고 페미니즘*은 서로 다른 종교인 유교와 기독교가 대화를 통해 공통점을 발견하고, 현대 페미니즘 시각으로 성평등을 위한 새로운 실천적 원리들을 찾으려고 한 책이다.[22] 이은선은 유교의 내재신관적인 초월성을 바탕으로 형이상학적이고 이원론적이며, 배타적인 기독교를 재구성하려고 노력하였으며, 자신의 내면 속에서 초월을 실현해 가는 과정으로 두 종교가 서로에게 배워야 함을 강조하였다.[23]

이은선은 유교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에서 기독교와 대화하며 유교와 페미니즘에 대한 새로운 이해의 틀을 찾고자 하였다.[24] 물론 이은선은 "유교가 여성을 억압하고 성차별한 것에 대해 비판하지만 인간의 삶을 좀 더 넓은 시각에서 생명역사의 관점에서 받아들이고 유교도 이를 수용하고 변화해야 한다"는 관점을 가졌다.[25]

나아가 이은선은 여성주의 시각으로 종교, 철학, 교육, 윤리의 문제를

---

[20] Ibid., 103-13.

[21] Ibid.,116-17

[22] 이은선, *유교 기독교 그리고 페미니즘* (서울: 지식산업사, 2003).

[23] Ibid., 46.

[24] Ibid., 121-28.

[25] Ibid., 184-91

통합적으로 이해하려고 하였으며 한국 사회의 양성평등을 위해서 어느 한 부분만이 아니라 다양한 각도에서 통합적 이해를 통해 해결점을 모색하려고 하였다. 기존의 페미니스트이 유교의 부정적 이해를 토대로 접근하려는 것과 다르게 이은선이 유교의 긍정성을 보고 좀더 포괄적이고 다양한 시각으로 접근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 본 서는 유교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접근, 그리고 통합적인 이해에 대한 비판적인 성찰을 함으로 보다 폭 넓은 이해를 가져다 준다고 본다.

박용옥 외 6인 공저의 저서 *한국여성연구1* 는 한국여성학회에서 남녀평등회복을 위한 노력으로 우리나라 성불평등의 문제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여성들의 삶을 지배해 왔는지, 그것을 극복하고 해방하기 위해 어떻게 할 것인지 학문적으로 고민의 결과를 책으로 엮은 것이다.[26] 가부장제 주제를 가지고 연구된 것으로 우리 사회 구조와 가족생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가부장제의 역사적 뿌리와 현재 왜곡된 모습들을 분석하였다. 박용옥은 유교적 여성관을 잘 반영한 책인 서경, 시경, 주역, 논어, 맹자, 예기 등의 책들을 분석하여 유교 안에서 여성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유교적 사회체제를 정립하고 유지 발전시키는데 합당한 여성의 자세와 도리를 제시한 책들을 연구하였다. 박용옥은 이 책들이 "여성을 복종과 유순, 그리고 비천으로, 반면에 남성은 지배와 강건, 그리고 존귀로 규정하여 성차별의 뿌리가 되었음"을 비판하였다.[27]

또한 장상은 기독교의 여성관을 조명하면서 전통적 기독교 여성관을 가부장적으로 규정하였다. 장상은 "교회전승, 성서전승, 신학전승에 이러한 가부장적인

[26] 박용옥 et al., *한국여성연구1* (서울: 청하출판사, 1992).

[27] Ibid., 11.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고 하였다.[28] 또한 장상은 "성서가 하나님을 남성으로 상징함으로 성직에서 여성을 배제하고 가부장적 질서를 이루었고, 신학의 이원론이 남성과 여성을 차별하는 근거가 되었다"고 비판하였다.[29] 이를 위해 여성신학적 입장에서 성서를 재조명하고, 남성중심의 신학을 재구성하여 가부장제를 해체하고 남녀 동등성, 상호의존성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에서 본 서는 유교적 관점과 기독교적 관점의 여성관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어떠한 대안으로 이를 극복해야 하는지를 성찰하게 하였다.

메일 데일리(Mary Daly)의 저서 *교회와 제2의 성*은 시몬드 드 보부아르(Simone de Beauvoir)의 책 *제2의 성*을 기초로 진화론적 입장에서 탈기독교적 여성주의를 시도하고자 한 책이다.[30] 성서의 모순들부터 교부, 중세, 근대기까지 여성차별적 신학의 왜곡들을 지적한 책이다. 데일리는 가부장적인 종교와 이념을 거부하고 기독교가 여성을 억압하는 도구가 되었다고 비판하며 교회를 떠난 급진적인 여성주의 신학자이다. 데일리는 "남성주의와 성차별주의의 가부장제는 현 세상의 문제의 근원"이라고 주장하였다.[31]

따라서 데일리는 이러한 가부장제를 극복하기 위해 여성들을 차별하고 억압하는 불의에 대해서 과감히 도전하고 저항할 것을 주문한다. 특히 데일리는 "교회 안에서도

---

[28] Ibid., 81.

[29] Ibid., 82.

[30] Mary Daly, *Church and the Second Sex 교회와 제2의 성*, trans. 황혜숙 (서울: 여성신문사, 1997).

[31] Ibid., 8.

여성들의 문제에 대해 질문하고, 주장하고, 성차별적 모순성을 터뜨리라"고 주장한다.[32] 이를 해방하기 위해서 "억압적 상황과 구조를 인식할 것"을 강조하였다.[33] 나아가 데일리는 "여성안수와 지도력을 인정하고 진정한 동반자 관계를 형성하여 모든 차원의 차별을 근절할 것"을 제시한다.[34]

특히 데일리는 "교회 안에서 양성의 가치를 발견하고 이를 개혁하기 위해서 여성주의 영성을 강조하고, 고도의 전문 훈련이 있어야 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35] 본 연구는 본 서를 통해 성서를 비롯한 교회 역사에 가부장적인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볼 수 있었고, 데일리의 급진적인 주장들을 살펴봄으로써 성차별을 극복하기 위한 좀 더 적극적이고 변혁적인 개혁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들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었다.

엘리사벳 A. 존슨(Elizabeth A. Johnson)의 저서 *하느님의 백한번째 이름*은 하느님의 신비에 관한 여성신학적 논의로서 하나님의 신비를 여성신학적 관점에서 재해석하였다.[36] 존슨은 기존 "하느님에 대한 상징과 남성중심적 언어적 유비에서 해석되는 가부장적인 신 인식"을 거부하였다.[37] 왜냐하면 존슨은 메리 데일리처럼 "가부장적 남성중심의 하느님 이해가 성차별, 인종차별, 계급차별, 인간 만능주의의 모든

---

[32] Ibid., 10.

[33] Ibid., 42.

[34] Ibid., 232-33.

[35] Ibid., 240.

[36] Elizabeth A. Johnson, *She Who is: The Mystery of God in Feminist Theological Discourse 하느님의 백한번째 이름,* trans. 함세웅 (서울: 성바오로. 2001).

[37] Ibid., 72-83.

지배형태들과 관련되어 있다"고 보았다.[38] 그래서 존슨은 남성성의 하느님을 벗어나 여성의 하느님으로 여성적인 이미지를 부각하여 여성 차원에서 하느님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였다.[39]

특히 존슨은 삼위일체 하느님을 소피아의 개념으로 새롭게 해석하였는데 "성령-소피아", "예수-소피아", "어머니-소피아"로 삼위를 새롭게 규정하였다.[40] 존슨은 히브리 성서 안에서 하느님의 현존과 행위를 가장 발전된 형태로 위격화한 "지혜(소피아)"를 여성으로 묘사한 것이다.[41] 존슨은 어머니-소피아를 통해 가부장적 기독교를 극복하려고 하였다.[42] 이러한 이론적인 근거는 위르겐 몰트만의 사회적 삼위일체론에서 영향을 받아 위계적이고 지배적인 삼위 관계를 거부하였다. 삼위는 서로 동등한 관계로 상호교류하고 관계 맺는 형식으로 존재하여 남녀평등의 상호작용적 모형의 근거가 되었다. 또한 존슨은 여성 하느님의 이미지로 "인간의 고통을 함께 하고 고통을 받는 하느님, 연민 넘치는 여성 하느님"을 소개하였다.[43] 본 서는 본 연구에 하느님에 대한 여성신학적인 이해를 깊게 하였다. 특히 여성의 하느님으로 어머니-소피아 하느님의 이미지는 모든 것을 포용하고, 사랑하고,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가져다 주는 이미지로서 새롭게 정립할 수 있었다.

권인숙의 저서 *양성평등이야기*는 본 연구에서 다루는 실제적인 삶의 적용에

---

38 Ibid.
39 Ibid., 91.
40 Ibid., 142.
41 Ibid.
42 Ibid., 166.
43 Ibid., 394.

도움을 주는 책이다. 교수로, 엄마로, 여성학자로서 딸과 대화를 나누면서 여자가 된다는 것, 여성적 정체성이 무엇인가, 양성평등이 무엇인가를 일깨우는 책이다.[44] 이러한 이야기는 남성들에게도 필요한 것으로 그동안 잘못된 성문화에서 온 고정관념을 벗어나 여성 중심에서 양성평등의 기초적인 지식들을 정리한 책이다. 권인숙은 특히 성차별 개념에 있어서 "차이와 차별을 구분하여 다르다는 것을 차이로 이해하고 다르다는 것이 결코 우등과 열등을 나누는 차별이 되어서는 안될 것"임을 강조하였다.[45] 남성은 이성적이고 여성은 감성적이라는 전통적인 해석을 거부하고 남녀 모두 양성의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주장한다. 이는 양성이 평등하다는 나의 관점과 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본 서는 남녀 성의 신체적 차이와 더불어 젠더 개념의 성 이해를 통해 남성과 여성이 모두 동등하다는 것에 대한 이론적인 기초를 제공하고 있다. 권인숙은 이를 기초로 직업과 관련하여 남녀 모두 기회의 균등의 환경이 조성되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46] 직장에서 남녀 불평등 실태를 조사하여 남녀 평등의 실질적인 방법을 대안으로 제시함으로 본 연구에 많은 자료를 제공하였다.

D. 용어의 정의

1. 성 개념

성의 개념은 다음 3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섹스(Sex)는 생물학적인 성의

---

[44] 권인숙, *양성평등이야기* (서울: 청년사, 2007).
[45] Ibid., 13-14.
[46] Ibid., 262.

개념으로 신체적, 유전적인 의미로 남성과 여성을 결정하는 것이다. 둘째, 젠더(Gender)는 사회적인 성의 개념으로 해당 사회의 문화 속에서 남녀에게 적절하다고 기대되는 사회적 특성과 행동기대에 따라 구조화된 성이다. 셋째, 섹슈얼리티(Sexuality)는 성적인 행위 뿐만 아니라 성에 대한 우리의 태도, 가치관, 문화 등 인격의 차원까지 포괄하는 개념이다.[47]

본 연구는 생물학적인 성을 기초로 한 차별적인 성 이해를 극복하고, 사회 문화 속에서 규정한 젠더 개념의 성 이해를 비판함으로 진행 될 것이다. 가부장적인 제도 아래서 규정된 남성과 여성의 구분에서 벗어나 성 역할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성에 대한 태도와 가치관에 있어서 양성은 평등하다는 기본적인 개념에서부터 다양한 문제들이 논의 될 것이다.

2. 양성평등

양성평등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다양한 정의들이 있다. 학자들마다 관점과 의미의 차이는 있지만 영어의 Gender Equality를 우리말로 번역한 단어로 남녀간의 차별이 없는 평등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김모란은 "생물학적 성의 Sex와 사회문화적으로 학습된 성인 Gender가 서로 평등하게 어우러지는 상태를 양성평등"이라고 정의한다.[48] 이는 생물학적 성에만 제한되었던 기존의 이해에서 벗어나 사회문화적으로 학습된 성 개념으로 확정된 것으로 이해된다. 이재옥은 "남녀 간의 본래적 성 차이는 없으며

---

[47]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양성평등 실현으로 건강가정만들기," in *교육자료집*, ed.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서울, 2005), 7-8.

[48] 김모란, "양성평등적 목회를 위한 여성지도력 연구," in *한국여성신학* no. 77호 (서울: 한국여성신학학회, 2013), 96,

여성성과 남성성은 후천적으로 습득되며 이때 양성의 특성은 동등하다"고 하였다.[49] 이재옥의 이해 역시 김모란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며 생물학적 성 이해에서 벗어나 후천적인 습득, 즉 사회문화적으로 습득된 성에 기초하여 양성이 평등함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김양희는 양성평등이란 "성에 따라 남성과 여성의 능력과 속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가지지 않으며, 여성에 대한 편견에서 자유롭고, 여성의 권리와 인권에 반하는 차별적인 행동을 승인하거나 채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를 수정하기 위한 제도와 정책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태도"라고 정의한다.[50] 김양희의 성에 대한 이해는 앞의 김모란과 이재옥의 정의에 비해 매우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내용과 행동을 담고 있다. 성에 따른 능력과 속성과 역할에 대한 이해해서 벗어나 성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과 이에 따른 차별을 거부하고 이를 수정하기 위한 일체의 행위로 보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나는 양성평등은 성(Sex)에 따라 남성과 여성의 능력과 역할에 대한 규정된 개념을 가지지 않으며, 유교적인 가부장제에서 규정한 여성에 대한 편견을 극복하고, 여성의 권리와 인권을 존중하며 남성과 동등하게 능력을 발휘하고 자아를 실현하는데 기회가 균등해야 한다는 태도라고 정의한다.

---

[49] 이재옥, "유아교사의 성역할 인식과 양성평등교육 요구에 관한 연구," in *한국교사교육* vol. 16 no.2 (서울: 한국교원교육연구, 1999), 217.

[50] 김양희 et al., "한국형 남녀평등의식 검사 개발," in *여성연구* vol. 14 no.1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2000), 23,

3. 가부장제

가부장제란 “가장이 가족 성원에 대한 지배를 지지하는 체제”를 말한다.[51] 이러한 지배는 구체적으로 남성을 중심으로 여성을 지배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가부장제는 “가족의 남성 수장이 가정 내 의존한 사람들을 지배하는 것을 합법화하고 강화하는 법적, 사회적, 경제적, 관계의 제도”를 말한다.[52] 조은은 가부장제도는 “생물학적인 성(Sex)을 근거로 위계 구조를 형성하여 남성은 지배하고 여성은 예속되어 남성중심의 사회적 관계에 의한 여성의 억압체계”를 지칭한다고 하였다.[53]

또한 하트만(Heidi Hartman)은 이러한 “가부장적인 억압 체계가 물적 기반을 지닌 사회 관계이며, 동시에 여성을 통제할 수 있도록 남성들간에 위계와 결속이 나타나는 일련의 사회적 관계”라고 정의하고 있다.[54] 강남순은 “가부장제에 대해서 가정의 아버지가 모든 소유권과 지배권 그리고 결정권을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권한과 힘은 정치, 경제, 사회, 종교 등 모든 차원에까지 확장되었다”고 하였다.[55] 강남순은 “남성이 여성을 지배하는 사회조직에 대해 지지하는 개념적 구성에 의해 형성되는 사고 방식과 감정 등을 가리킨다”고 하였다.[56] 이러한 정의를 근거로 볼 때 가부장제는 남성중심의 위계 구조 안에서 여성이 남성에 예속되어 철저히 불평등하고 억압적인

---

[51] 여성문화이론연구소, *페미니즘의 개념들* (서울: 동녘, 2015), 14.

[52] Letty M Russell and J Shannon Clarkson, *Dictionary of Feminist Theology 여성신학사전*, trans. 황애경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3), 37.

[53] 박용옥 et al., 191.

[54] Heidi Hartman, “자본주의, 가부장제, 그리고 성별 직무 분리,” in *제3세계 여성노동*, trans. 여성편우회 (서울: 창작과 비평사, 1985), 55.

[55] 강남순, *페니미즘과 기독교*, 14.

[56] 강남순, *현대여성신학*, 118.

상태가 되는 체제를 말한다.

4. 아버지 상(Image)

아버지의 상(Image)은 아버지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를 말한다. 상(Image)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눈에 보이거나 마음에 그려지는 사물의 형체”로 정의한다.[57] 윤주병은 “아버지 상이란 외부의 대상에 대한 심리적 반영이라기보다 아버지의 실제 인물과 관계되었다”고 보았다.[58] 또한 “이 아버지 상은 관계의 경험에 기초한다”고 하였다.[59] 다시말해서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경험되어지는 것이 그대로 아버지의 상이 된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아버지 상은 기독교적인 배경에서 자녀와의 신앙적인 관계 안에서 아버지 상을 이야기 한다. 이를 기초로 기독교와 유교적 가부장적인 아버지 상을 넘어 남녀 동등과 기회의 균등,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에 기초한 양성평등적인 아버지의 상을 의미한다.

E. 연구의 대상 (청중)

본 연구는 크게 3가지 부류를 대상으로 한다. 먼저, 그 일차적인 대상은 모든 기독교 가정의 자녀를 둔 아버지들을 대상으로 한다. 본 연구는 그들이 유교적인 가부장적인 문화 속에서 자라왔고, 기독교 가부장적인 요소들의 영향을 받아 양성평등적인 아버지에 대한 상을 갖지 못하였다고 본다.[60] 뿌리 깊은 남존여비 사상과

---

[57] Naver, “아버지상,” *국어사전*, www.naver.com (Accesed Aug 15, 2015).

[58] 윤주병, *종교심리학* (서울: 서광사, 1986), 134.

[59] Ibid.

[60] 줄리아 칭(Julia Ching)은 한국 기독교인들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동북 아시아의 여러 나라 기독교인들과 마찬가지로 유교적 배경과 가치관을 가진 기독교인이라고 지적하였다.

여성에 대한 차별과 비하에 대한 고정관념이 그들 안에 여전히 존재하여 가정과 교회에서 그러한 영향을 주고 있다. 때문에 그러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고 양성평등의 원리에 기초한 훈련을 통해서 기독교인으로서 건강한 아버지상을 세우기 위해서 양성평등의 훈련이 필요한 기독교 가정의 아버지들이 본 연구의 일차적인 청중이다.

본 연구의 두번 째 청중은 기독교 가정의 아버지들을 대상으로 목양하고 섬기는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그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의 가정들이 건강하게 세워지고 이를 위한 훈련을 하도록 책임이 주어져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목회자 역시 양성평등에 대한 바른 인식론적인 기초를 토대로 건강하고 균형있는 목회관을 정립하여야 한다. 목회자들에게는 여성에 대한 차별과 불평등한 사회 악의 구조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예언자적 사명이 주어져 있다. 때문에 목회자들은 오늘날 기독교 가정의 아버지들은 가부장적이고 성차별적인 아버지상을 극복하고 양성평등적인 아버지상을 정립하고 아버지의 역할을 가정에서 충실히 수행하여, 평신도들보다 먼저 훈련되고 준비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세번 째 청중은 기독교 가정의 아버지이며, 가정과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 그리고 세 자녀의 아버지인 나 자신이다. 본 연구의 주체인 나 자신도 유교적인 가부장적인 문화와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오면서 가부장적인 아버지상을 갖게 되었고 가부장적인 자세로 가정을 대해오고 있다. 나 자신도 여성에 대한 차별과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더욱 아쉬운 것은 양성평등적인 아버지에

강남순, *페미니즘과 기독교*, 97.

대한 이해와 이에 따른 역할과 훈련도 전혀 받아 보지 못하였기에 이를 극복하기 위한 기회와 노력의 필요성 조차 느끼지 못했었다.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로서 가정을 섬기는 아버지로서 양성평등의 아버지상을 정립하기 위한 훈련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모든 과정은 목회자로서 한 가정의 아버지로서 내가 양성평등적 아버지상을 정립하는데 좋은 훈련의 기회가 될 것으로 여긴다.

F. 연구의 범위와 제한성

본 연구는 양성평등적인 아버지상을 기초로 한 아버지 훈련에 관한 연구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주 대상은 기독교인으로서 가정에서 자녀를 둔 아버지이다. 비기독교인이거나 기독교인이지만 미혼이거나, 가정에 자녀가 없는 남성의 경우에 그 연구 대상에서 벗어나게 된다. 기독교인이 아니거나 자녀가 없다 하더라도 양성평등에 관해서는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으나 본 연구의 목적인 양성평등의 아버지상을 정립하고 실천하기 위해서는 그 대상이 미혼인 기독교인 남성이며, 자녀를 둔 아버지로 제한된다. 또한 자녀의 특정 연령 시기를 고려하지 않고 모든 연령 때의 자녀를 둔 아버지를 대상으로 삼았다.

또한 본 연구의 주목적은 양성평등적 아버지상을 위한 훈련 프로그램의 구성이지만 실제적으로 가정과 교회 현장에서 활용되지 않았기에 장단기적으로 어떠한 효과를 얻을지에 대해서는 검증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양성평등을 위한 아버지상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에 양성평등을 위한 어머니상과 역할에 대해서, 나아가 양성평등적이 아버지상이 자녀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고 있음을 밝힌다.

G. 연구의 독창성과 공헌

본 연구는 양성평등적인 아버지상을 기초한 기독교인 아버지 훈련에 관한 연구이다. 일반 사회에서는 양성평등에 관한 연구와 훈련이 매우 진일보 한 상태이다. 그러나 한국 기독교회와 신앙에서 이러한 연구는 부족하다고 보여진다. 연구자가 속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 역시 이러한 연구가 전혀 없었던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교회에서 양성평등 실현의 가능성은 매우 암담해 보이는 것이 현실이다. 한국 기독교 자체가 가지고 있는 가부장성에 대한 비판적 성찰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그동안 매우 부족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 특히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기독교 가부장성을 극복하고 양성평등을 위한 실천을 위한 연구를 하였다는 것에 먼저 그 독창성을 가질 수 있다.

또한 기독교 가정의 아버지들은 유교적이고 기독교적인 가부장적인 영향으로 그릇된 여성관, 여성의 비하, 그리고 성차별 등 잘못된 아버지상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양성평등에 관한 교육이나 훈련을 받아본 경험이 거의 없기 때문에 양성평등의식이 매우 결여된 상태에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교회와 가정에서 남성과 아버지로서 양성평등의식을 가지고 여성에 대한 존엄과 평등, 자유를 존중하고 인정할 수 있는 건강한 아버지상을 세우도록 훈련하는데 있다. 유교와 기독교의 가부장적인 영향의 한국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기독교 가정의 아버지로서 양성평등을 위한 정체성을 세우고 그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둘 수 있다고 본다. 무엇보다 개교회에서 아버지들을 대상으로 양성평등을 위한 훈련할 수 있는 구체적인 훈련 프로그램을 제시함으로서 가정과 교회에서 양성평등 훈련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체교회에서 활용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본다.

H. 논문 개요

본 연구는 서론에서 문제제기와 연구목적, 연구 방법론, 문헌자료의 평론적 검토, 용어의 정리, 연구의 대상, 그리고 연구범위와 제한성, 독창성 등에 대해 논할 것이다. 2장에서 양성평등적 아버지상을 논하기 위해서 먼저 가부장제가 무엇인지, 한국적인 상황의 유교 문화에 기초한 가부장제가 어떻게 발생하고 현재까지 내려와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특히 가정에서 아버지가 위계적인 지배 권한을 갖고 소유권을 행사하며 남녀를 차별하고 여성을 비하하고 억압하는 가부장제의 문제점을 점검할 것이다. 그리고 기독교 안에서 나타난 가부장제의 모습이 무엇인지, 성서에 나타난 가부장적인 요소들, 기독교 역사에 나타난 가부장제의 모습들, 한국 기독교의 가부장적인 모습들이 무엇인지를 점검하고 이것이 기독교인들에게 미친 영향과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논할 것이다.

3장에서는 양성평등이 무엇인지 그 의미와 개념을 정의하고 양성평등을 위한 핵심적인 가치인 인간의 존엄성, 기회의 균등, 여성의 주체성을 가지고 논할 것이다. 양성평등을 위한 이론적인 기초를 정립하기 위해 양성평등에 대한 성서적, 신학적, 그리고 교회론적인 논의를 거칠 것이다. 양성평등을 위한 이론적 근거로 성서에서

‘하나님의 형상(Imago Dei)’에 따른 창조된 인간, 몰트만의 ‘사회적이고 관계적인 삼위일체론’의 신학, 그리고 류터의 해방적이고 여성신학적인 ‘여성-교회’의 교회론에 기초하여 양성평등의 이론적인 근거를 둘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한 역사적인 노력들을 점검하면서 한국 사회와 한국 기독교에서 양성평등을 위한 노력들을 점검할 것이다.

4장에서는 앞서 논의된 것을 바탕으로 양성평등적인 아버지상의 원리가 무엇이지를 정리할고 양성평등을 위한 원리로 평등, 참여, 협력, 그리고 관계 등을 제시할 것이다. 이러한 원리를 바탕으로 양성평등을 위해 가정에서 아버지 역할이 무엇이고 어떻게 그 역할을 수행할 것인지 논할 것이다. 또한 한국의 대표적인 아버지 훈련인 두란노 아버지학교를 양성평등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보완할 부분을 제시할 것이다. 나아가 양성평등의 원리들을 기초로 양성평등을 위한 아버지 훈련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어떻게 운영하고 구성할 것인지 기획할 것이다. 그리고 프로그램의 목적과 내용, 방법, 평가 등을 바탕으로 5장에서는 4주 훈련 프로그램을 제시할 것이다. 그리고 6장에서 결론 및 제언으로 본 연구를 마치고자 한다.

II. 가부장제란 무엇인가?

가부장이란 앞에서 언급했듯이 가장이 가족 성원에 대한 지배하는 체제를 말한다. 이러한 지배는 구체적으로 남성이 여성을 지배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강남순은 가부장제에 대해서 "가정의 아버지가 모든 소유권과 지배권 그리고 결정권을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권한과 힘은 정치, 경제, 사회, 종교 등 모든 차원에까지 확장되었다"고 주장한다.[61] 그러므로 가부장제는 남성중심의 위계 구조 안에서 여성이 남성에 예속되어 철저하게 불평등을 경험하게 되는 체제를 말한다.

인간들이 먹이를 찾아 수렵생활을 할 때는 계급이나 지위도 없었고 재산 형성도 없으며 이에 따른 남녀 성차별도 없었다. 중국의 소수민족인 모소족의 경우는 여성이 중심이 되어 가정을 이끄는 가모장제의 전통을 가지고 있었다.[62] 그러나 농경사회로 접어들면서 한 곳에 정착하게 되었고 남성들은 재산이 형성되고 지위를 얻게 되었다. 여기서 남성은 주로 영토방어와 관리, 여성은 자녀출산과 양육 그리고 농경을 담당하는 성별 분업체계가 강화되었다.[63] 박용옥은 이러한 "성별 분업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여성의 성적 지배의 강화, 여성에 대한 저평가하는 이데올로기의 강화로 인하여 남성중심의 가부장제가 강화되었다"고 보고 있다.[64] 이러한 성별 분업의 바탕 아래 국가조직의 대두는 남성중심의 가부장제를 더욱 강화하였다. 국가 조직은 여성에게 사회적 성인의 자격을 부여하지 않음으로 여성을 제도적으로 부인하였고, 여성은 단지

---

[61] 강남순, *페니미즘과 기독교*, 14.
[62] 권인숙, 65.
[63] 박용옥 et al., 122.
[64] Ibid., 124.

남성의 피부양자로서 지위만 갖게 되었다.[65] 따라서 국가조직은 남성중심의 지배집단을 구성하고 여성의 생산적 기여를 제도적으로 무시하며 지배권력 강화나 통치 이데올로기 유지에 남성에 의한 여성지배방식을 채택함으로서 사회 전반에 대한 가부장제의 공식화 이루게 하였다.[66]

A. 유교적 가부장제

유교의 가치관은 한마디로 예(禮)로 표현된다. 예를 실현하기 위해 구체적인 강론으로 삼강오륜을 들 수 있다. 이 예의 사상은 유교 전통의 권위주의와 가부장주의의 기초가 되었다. 특히 여성들에게 예를 규정해 가는 과정에 여러 가지 제약을 두어 여성들을 억압하였다. 유교의 가르침을 집대성한 사람은 공자이다. 그의 가르침의 핵심은 '인(仁)과 의(義)', '조상숭배', 그리고 '수직 윤리'이다.[67] 특히 공자는 음양오행설의 주술적인 우주관을 이야기하면서 인간이 하늘에 잘못하면 음과 양, 그리고 오행이 순환하다가 흩뜨러져서 재앙을 만들어낸다는 논리를 주장하면서 수직적인 질서를 강요하였고, 이러한 원리는 황제가 백성을, 남성이 여성을 다스리는 정치 원리에 이용되었다.[68] 여기서 음양의 원리를 설명하면서 음은 여성적인 것이며, 양은 남성적인 것으로 음은 어둡고, 유약하고, 수동적인 반면에 양은 밝고, 강하고, 능동적이라고 하면서 이것을 남녀의 관계에 적용하여 우등과 열등 관계의 계급주의적인 원리로

---

[65] Ibid., 129.
[66] Ibid., 131.
[67] 김경일,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서울: 바다, 2004), 121.
[68] Ibid.

변형되었다.[69]

공자는 여성에 대해서 남성보다 낮은 인간이며 결코 남성과 평등해질 수 없는 존재이며, 여성들의 교육의 목적은 자아의 개발이나 발전이 아니라 완전한 복종을 이루기 위한 것으로 보았다.[70] 이러한 유교의 가치관은 결국 위계적이고 남성중심의 우월적인 사상의 토대를 만들었다. 그러한 원리는 국가와 가정에 통치이념에 근거가 되었고, 결국 여성을 비하하고 억압하며 여성에 대한 불공평한 대우를 만들어 냈다.

조은은 우리나라에 가부장제가 확대되고 강화되는 시기를 '조선중기'로 이야기 하면서 그 근거를 "조선초기 재산상속이 부부상속에서 조선중기 부자상속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가부장제가 강화되었음"을 주장하였다.[71] 그러나 유교가 공식적인 사회 이념으로 자리잡기 전인 고려시대에는 여성이 비교적 자신의 삶을 결정하였고, 재산도 아들과 딸들에게 공평하게 분배하였으며 모계도 부계만큼이나 중요하게 여겼다.[72] 유교가 조선조의 사회 정치적 이념으로 받아들여지면서 이처럼 가부장제가 확립되고 여성에 대한 불평등과 차별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김경일은 이러한 유교 문화의 최대 피해자는 여성임을 강조하면서 "성의 억압, 불평등, 차별 등이 우리 사회의 전반에 걸쳐 이루어졌다"고 하였다.[73] 그리하여 김경일은 "유교 문화에서 여성은 여성이 아니며

---

[69] 강남순, *현대여성신학*, 266.
[70] 강남순, *페미니즘과 기독교*, 344.
[71] 최홍기 et al., *조선전기 가부장제와 여성* (서울: 아카넷, 2004), 238.
[72] 강남순, *페미니즘과 기독교*, 342.
[73] 김경일, 158.

왜곡된 생명체"였다고 역설하였다.[74]

나아가 이러한 유교적 가부장제는 여성에게 정절을 강요하고 남성의 성에 대해서 상당한 자유를 허용함으로 성폭력을 양산하는 결과를 가져왔다.[75] 김범수는 "한국사회에서 유난히 두드러져 보이는 성범죄의 유형은 권력을 가진 남성이 약한 여성을 상대로 한다는 것이며 이것은 가부장제의 유산이 여전한 남성중심의 위계사회에서 그 밑바탕에 약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함이라는 사회구조적인 결함"이라고 보았다.[76] 이처럼 유교적인 가부장제는 성범죄와 성폭력을 양산하는 근거가 되었다고 보인다. 또한 가장이 가정을 다스려야 한다는 것으로 여기고 가정을 사적인 영역으로 규정하여 외부에서의 관여를 차단함으로 가정폭력을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왔다.[77] 오늘날 한국사회에 암묵적으로 이루어지는 가정폭력 역시 유교적 가부장제의 영향을 받은 결과로 보인다.

강남순은 "유교가 위계적이고 남성 지배적인 인간관계를 강조함으로서 개인의 자유와 창조성을 극도로 제한한다"고 하였다.[78] 권위적이고 수직적인 관계 안에서는 창의성을 발휘할 수 없을 뿐더러 자율적인 일을 할 수 없게 만든다. 김경일은 "유교의 위계적이고 관료적이고 혈연과 지연 중심적 가치와 행동은 더 이상 오늘날 시대와 맞지

---

[74] Ibid., 170.

[75] 김일수, "대량화하는 성폭력범죄 대처하려면," *국민일보*, Sep 16, 2014.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2786712&code=11171316&cp=nv(Acessed Aug 30, 2015).

[76] 김범수, "성범죄보다 부끄러운, 더 슬픈," *한국일보*, Aug 11, 2015. http://www.hankookilbo.com/v/200e6b8ceb604f6c82aef8c4a7ec36c3(Accessed Aug 30, 2015).

[77] 강남순, *페미니스트 신학*, 249.

[78] 강남순, *페미니즘과 기독교*, 343.

않다"고 하였다.[79]

이처럼 우리 사회의 병폐와 뿌리깊은 원인이 유교의 가부장적 요소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김경일은 "공자라는 사람의 사유로 만들어 낸 생각의 결과물을 절대시하고 신봉하면서 그것이 삶의 원리가 되어 우리 사회를 지배해왔다"고 주장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80] 그러므로 나는 뿌리깊은 유교적 가부장제의 모순과 부정의와 불평등에 대해 비판적 성찰을 하고 오늘의 시대에 맞게 대안을 찾아 새롭게 제시되어야 한다고 본다.

B. 기독교적 가부장제

1. 성서의 가부장적인 요소들

성서에는 남녀 평등적인 요소들과 더불어 가부장제적인 요소들도 동시에 존재한다. 이러한 이유로 성서가 마치 가부장제를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지기도 한다. 그래서 가부장적 질서를 성서가 정당화하고 옹호하여 마치 가부장적인 질서가 하나님의 질서인 것처럼 동일시되는 경우도 있다. 예를들면 구약의 율법에 나타난 종교적 의식을 보면 남자와 여자를 차별한다. 레위기 12장에서 여인이 잉태하여 남자를 낳으면 일주일간 부정하고 33일이 지나야 산혈이 깨끗해지는데 여자 아이를 낳으면 이주간 부정하고 66일이 지나야 산혈이 깨끗해진다고 한다.[81] 남자 아이와 여자 아이에 이러한 큰 숫자적인 차이는 자연스럽게 남자와 여자에 대한 차별을 갖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

[79] 김경일, 148.

[80] Ibid.

[81] 레위기 12:4, 5 (개역개정판)

이외에도 상속법, 이혼법, 간음죄에 대한 처벌 등 여러 법규에서 여성을 열등하고 의존적이고 이차적인 존재로 규정한다.[82]

김세윤은 이러한 가부장적고 여성에 대한 비하는 창세기 인간의 타락 이후에 더욱 심화되었다고 보았는데 창세기 3장 16절부터 타락의 질서 속에서 남성이 우월적이고 여성이 종속적인 것으로 강화되었음을 주장한다.[83] 이로 인해 여성은 남성에게 종속되고 아내는 남편의 재산에 속하게 되며, 일부다처제가 행하여지게 되었다. 프란시스 쉐퍼(Francis Schaeffer)는 남자와 여자는 타락하기 전에 '구조화되지 않은 민주주의' 방식으로 살고 있었다고 하였다.[84] 창조 이전엔 성별간 위계질서가 없었지만 창세기 3장의 타락 이후에 남녀간의 위계질서와 차별이 발생되었던 것이다. 마르디 카이즈(Mardi Keyes)는 창세가 3장 16절의 저주는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깨어진 세상에서 살고 있는 인생의 모습을 비극적으로 묘사한 것으로 타락의 결과로 이해하였다.[85]

그런데 여자를 이러한 인류 타락의 주역으로 여겼던 성서의 원문에서는 뱀의 대화의 대상이 단수가 아닌 복수로 쓰여졌다는 사실이다.[86] 그것은 뱀의 유혹이 단순히 여자에게만 그 대상이 되었던 것이 아니라 남자를 포함한 모두에게 향했다는 것이다.

---

[82] 박용옥, 82.

[83] 김세윤, "성경은 남성과 여성의 관계에 대해 무엇이라고 하나," in *목회와 신학* 2004년 5월호 (서울: 두란노, 2004), 58.

[84] Mardi Keyes, *Feminism and Christianity 페미니즘과 기독교*, trans. 신현기 (서울: 한국기독학생출판부, 1996), 7.

[85] Ibid., 8.

[86] 박용옥 et al., 91.

그리고 그들은 함께 범죄한 것으로 이해된다. 폰 라드(Gerhard vonRad)는 타락 기사에서 핵심은 “누가 먼저 유혹을 넘어갔느냐가 아니라 실과를 먹음으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한 창조자의 주권과 인간의 피조물성을 부정하는 도전”이라고 하였다.[87] 이러한 성서에 해석과 관점은 기존의 전통적인 성서해석에 대해서 새로운 성서해석적 틀을 제공하고 있다. 나아가 전통적인 성서해석의 틀로 형성된 성서의 가부장적인 요소들이 잘못되고 왜곡된 해석에서 나왔음을 발견하게 된다.

신약에서도 가부장적인 질서는 곳곳에서 발견된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도 남편은 머리이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관계로 설정하고 있다. 그리스도가 교회를 다스리듯이 남편이 아내를 다스리는 관계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전통적인 성서해석의 관점에서 여성은 철저히 열등한 존재로 비하되거나 배제되어 왔다.

신약에서 가부장제를 정당화하는 대표적인 본문이 고전11:2-16절, 고전14:34-35, 딤전2:11-15절이다. 고전11:2-16절에서 ‘여자는 남자의 머리’(3)라는 표현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다’(8), ‘여자가 남자를 위해 지음받은 것’(9)이라는 표현들을 문자적으로 보면 매우 문제되는 부분이다. 그런데 남자 중심의 흐름이 11절에서 갑자기 전환된다. ‘주안에서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11),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느니라’(12)라는 표현으로 남녀 평등적인 관점을 보여준다. 이전의 남성중심과 여성열등적인 문구가 10절을 기점으로 11장 전체의

---

[87] Gerhard VonRad, *Genesis 창세기*, trans. 한국신학연구소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0), 61.

결론적인 표현으로 정리된다. 이러한 바울의 이중적인 관점에 대해 김세윤은 사본학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문맥'이라고 지적한다.[88]

그러한 불안정성은 고전14:34-35절에도 나타난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남자나 여자나 하나'라고(갈3:28) 하면서 '여자는 교회 안에서 잠잠하라'(34), '여자가 교회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고 대조적인 표현을 한다. 당시 고린도교회의 무질서한 상황을 대변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극명하게 대조되는 표현은 많은 주석학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후대에 삽입된 것으로 간주된다고 김세윤은 말한다.[89] 바울이 한 편지 안에 서로 모순되는 가르침을 준다는 것은 편지를 받는 사람에게 엄청난 혼란을 가져다줄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가 처한 상황에서 그리고 바울의 전체적인 복음의 관점에서 해석할 때 이러한 상의한 구절들은 후대에 씌었다고 보는 것이 설득력이 있다고 보인다.

또한 디모데후서 2장 11절에서 15절에 내용에서도 이러한 내용들이 제차 반복된다.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11),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12),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13),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14), '여자들이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게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15)라는 표현들을 보게 된다. 이 본문 역시 바울의 남녀 동등성의 큰 원칙에서 벗어난 표현들이다. 디모데가 목회하는 현장에는 영지주의자들의 영향으로 여자들이 교회에서 물의를

[88] 김세윤, 66.
[89] Ibid.

일으키는 특수한 상황에서 질서를 잡기 위해 쓰인 것으로 이해된다. 이단의 공격을 막고 교회를 지키기 위한 특정한 여성들에게 주어진 상황적 교훈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90] 그러한 특수한 상황에 선포된 말씀을 마치 전체로 일반화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해석이라고 보는 견해에 나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캐서린 크로거(Catherine Clark Kroeger)가 7년이 넘게 에베소 지역에서 고고학적인 연구한 결과 역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본다. 크로거는 바울의 이러한 표현은 에베소라는 당시 특수한 항구지역에서 성적으로 부도덕한 문제를 일으켰던 이단적이며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여성들에 대한 제한적인 메시지임을 밝혔다.[91]

그러므로 나는 성경 안에 있는 이러한 가부장적인 요소들을 해석함에 있어 문자대로만 받아들이기 보다는 그 당시 성경이 기록된 상황과 더불어 성경 전체의 복음의 정신을 토대로 이해해야 한다고 본다. 특별히 성경이 편집되는 과정에서 편집자의 의도에 따라 삽입되거나 그 본래적 의도가 훼손되었는지도 볼 수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성경의 저자도 남성이고, 후대에 편집한 사람도 남성이며, 이것을 해석하는 사람도 남성이기에 그 남성들에 의해 왜곡된 성서 해석으로 인해 가부장적인 질서들이 세워지고 인용되어지며 정당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김세윤은 “기득권자들이 자신의 것을 옹호하고 정당화하기 위해 그릇된 성서 해석으로 성서를 악용하여, 해방을

---

[90] 김영관, “남과 여의 동등성에 관한 신학적 고찰,” in *목회와 신학* 2004년 5월호 (서울: 두란노, 2004), 125.

[91] Ibid., 126.

가져와야 할 교회가 도리어 억압을 가져오게 한다"고 비판한다.[92] 강남순도 성서해석에 있어서 "기존의 불의한 상황을 합리화하는 근거로서 성서가 인용된다면 해석자의 이해와 이익에 따라 정치적 행위가 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93]

여기서 전통적인 성서 해석의 틀에서 벗어나 양성평등을 위한 성서 해석을 위해 강남순은 다음 세 가지 여성신학적 입장에서 성서 해석의 모델들을 분류하였다.[94] 첫째는 러티 러셋(Letty Russell)과 같은 신학자의 입장으로 성서는 창조를 위한 하나님의 해방적 행위를 증거하는 책으로 미래에 하나님 나라의 해방적 특성과 보편성을 연관시켜 해석하는 관점이다. 둘째는 류터와 같은 신학자의 입장으로 예언자들과 예수의 비판적 원리를 가지고 당시의 종교적, 경제적, 그리고 정치적 권력을 비판한 것 같이 이제 기독교의 가부장적인 구조를 비판적 시각에서 보아야 한다는 관점이다. 셋째는 엘리자베스 피오렌자(Elizabeth S. Fiorenza)와 같은 신학자의 입장으로 성서를 고정적인 원형이 아닌 미래를 향해 열려있는 전형으로 보면서 해방과 구원에 대한 공동체적인 비전은 성서로부터 직접 도출되는 것이 아니고 성서에 특징지워지는 것으로 하나님의 계시는 성서 속에서 일회적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위해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95] 그러므로 성서의 특정한 구절이나 전통에 근거해서가 아니라

---

[92] 김세윤, 71.

[93] 강남순, *페미니즘과 기독교*, 270.

[94] Ibid., 275.

[95] 피오렌자는 성서를 철저히 가부장적인 산물로 이해하므로 여성해방적 기반이 성서에서 나올 수 없다고 보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서가 가부장적이지만 그 안에 담겨 있는 여성들의 역사를 보아야 하기 때문에 성서의 가치를 역사적인 것으로 축소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성서적 유산을 기억하고 갱신하는 관점으로 보았다. 피오렌자의 이러한 입장은 성서는 더 이상 권위의 원천이 아니라 “해방을 위한 새로운 모델로 성서 해석의 권위를 과거 및 현재의 성서적 문화권 영향 아래에 살면서 여성해방을 위한 여성 공동체와 교회”에 두었다.[96]

이처럼 전통적인 가부장적인 성서 해석의 틀을 통해 가장 큰 피해자는 여성이였음을 발견하게 된다. 이러한 남성중심의 성서 해석이 성서 본래의 의미를 상쇄하고 왜곡하여 그릇된 가치관을 형성하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강화하는데 악용되었음을 확인하면서 본 연구는 성서의 본래적인 의미와 뜻을 파악하려는데 노력할 것이다. 나아가 본 연구를 통해 남성중심의 해석학적인 관점보다는 그러한 전통적인 성서 해석의 틀을 깨고 당시 상황과 성서의 근본 정신과 본래적 의도를 파악하고, 현재의 상황에 대해 비판적이고 예언자적인 관점과 더불어 해방을 위한 여성공동체의 관점에서 좀 더 균형있고 폭 넓게 성서를 볼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2. 기독교 역사의 가부장적인 모습들

피오렌자는 초기 기독교회의 선교운동을 집중적으로 연구함으로 “초기 기독교회 공동체에서는 예수를 따른 여성들은 평등적인 제자직의 형태를 취함으로 여성 리더들을 인정함으로 가부장적인 기독교와 다른 대안적인 전통이 존재했다”는 것을 주장한다.[97]

---

[96] 이은선, 175. 피오렌자는 여성해방을 위한 성서해석을 위해 4가지 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의심의 해석학, 둘째 선포의 해석학, 셋째 비판적 회상의 해석학, 넷째 창조적 실현의 해석학이다.

[97] 김애영, “한국교회의 갱신을 촉구하는 여성신학,” in *여성신학과 한국교회* (천안: 한국신학연구소, 1997), 294-95.

이러한 가부장적인 교회전통을 벗어난 초대 기독교회 공동체의 평등주의와 포괄주의적 전통은 소멸되지 않고 기독교 역사에 면면히 이어져왔다. 교회사를 전공한 류터는 기독교회의 기원들부터 시작하여 19세기 말까지 연구를 통해 여성들이 기독교의 역사에서 주도적으로 활동해 온 흐름이 있었음을 주장한다.[98] 영지주의, 몬타니즘, 중세의 영성파, 종교개혁 후기의 좌파적 종파운동들, 19세기 미국의 성령운동들은 역사적 제도로서의 교회와는 달리 여성들에게 성직을 허용하고 여성의 리더십을 부여함으로 여성의 참여를 이끌어왔다.[99]

그러나 제도권 안의 기독교회에서는 여성에 대한 철저한 배제와 차별이 있었음을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강남순은 "기독교의 가부장제는 아리스토텔레스(Aristotle)의 대립적인 이원론을 근거로 확고한 근원적 원리가 형성되었고 이러한 이원론은 여성의 열등성을 강화하고 합리화하는 사상적 근거가 되었다"고 하였다.[100] 플라톤(Plato)의 이원론이 그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이어졌으며,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원론은 큰 저항없이 기독교회에 고스란히 영향을 주어 남성과 여성에 대한 차별을 가져온 것이다.

초대 기독교회의 교부인 터툴리안(Tertullian)은 "모든 여자는 이브의 악한 행실을 지니고 있어서 여자는 악마의 통로"라고 하였다. 따라서 여자는 "하나님의 법을 어긴 최초의 인물이고 남자를 멸망시킨 악을 행한 자로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

[98] Rosemary Radford Ruether. *Sexism and God-Talk*, *성차별과 신학*, trans. 안상님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5), 204-14.

[99] Ibid.

[100] 강남순, *현대여성신학*, 154.

죽음을 당했다"고 주장하였다.[101] 또한 어거스틴(Augustine)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남자는 영적인 존재로 인식하고, 여자는 물적인 존재로서 이해하여 육체에 속한 여자는 영혼에 속한 남자보다 열등한 존재"로 규정하였다.[102] 여자의 창조는 '남자의 보조적인 존재'로 인식되었으며 먼저 범죄한 여자는 그 댓가로 '남자의 지배를 받게 되어 남자에게 종속되는 존재'로 전락하게 되었다는 것이다.[103]

이처럼 기독교 역사 속에 흐르는 남성우월주의와 여성에 대한 비하는 초대교회를 지나 중세교회에서도 면면히 흐르고 있음을 보게 된다. 신학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토마스 아퀴나스(Thomas Aquinas)는 여성이 창조된 이유를 오직 생식능력 때문이라고 규정함으로서 여자는 '잘못된 남자(misbegotten man)'로 인식했던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 아래 여성의 열등성을 더욱 확고히 고착시키는 역할을 감당했다.[104]

종교개혁자들의 여성에 대한 이해는 조금은 진일보 하였으나 근본적인 변화는 없어보인다. 루터(Martin Luther)는 "여성은 원래 남성과 평등한 존재로 지음 받았으나 타락 이후 열등하게 되었다"고 하였으며, 칼빈(John Calvin)은 여성이 태초부터 남성과 평등한 존재이며, 여성이 남성에 대한 종속은 여성의 열등성 때문이 아니라 '신이 내린 질서'라고 주장하였다.[105] 이러한 칼빈의 사상은 바르트(Karl Barth)에게 그대로 전해져서

---

[101] Ibid., 158.
[102] Ibid., 159.
[103] 박용옥 et al., 86.
[104] 강남순, *현대여성신학*, 157.
[105] Ibid.

남녀는 평등하지만 여성이 남성에게 복종하고 따르는 것은 신이 정한 질서라고 규정함으로서 지배와 종속을 정당화하였다.[106]

류터나 콜린스(Sheila D. Collins)와 같은 현대 여성신학자들도 "여성의 억압이 이원론적 사고 구조에서 유래한다"고 하였다.[107] 특히 류터에 의하면 기독교의 이원론적인 구조는 "기독교가 남성 유일신의 종교로 고착됨으로서 강화되었다"고 하였다.[108] 류터는 남성 유일신 사상이 종교적 구조를 통하여 가부장적인 규범의 사회적 계급주의를 강화하여 '하나님-남자-여자'라는 하나의 상징적인 서열을 만들었다고 보았다.[109] 이원론을 기초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가부장적인 남성성의 이름을 사용함으로 인해 기독교의 가부장제가 형성되었다는 류터의 견해는 설득력이 있다. 가부장적인 구조 속에서 기독교인이 하나님을 남성으로 상상하는 것은 그 만큼 여성은 신성하지 않고 남성은 신성하다는 생각과 더불어 여성은 남성에 종속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그래서 류터는 하나님의 대한 여성성을 강조하기 위해 하나님을 '여신(Goddess)'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신성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남성적, 여성적 각 양식을 통합한 상징을 표기하였다.[110]

이러한 기독교 상징체계에 처음으로 문제를 제기한 사람은 메리 댈리(Mary Daly)였다. 그녀는 "기독교를 '아버지와 아들의 종교'로 규정하고 하나님은 남성적인

---

106 Ibid.
107 Ibid., 154.
108 Ibid.
109 Ibid., 276.
110 Johnson, 72.

은유로 시사되었고, 그의 아들 예수도 남성으로, 선지자들, 사도들, 교회 지도자들이 남성으로 인식함으로 여성을 도외시하였다"는 주장하였다.[111] 그리하여 댈리는 현대 여성들이 성차별적 억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모든 아버지의 아버지이고, 왕중의 왕이며, 모든 가장들의 가장이고, 성차별적 문화의 상징인 남성으로서의 신을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112] 엘리사벳 존슨(Elizabeth A. Johnson) 역시 가부장적인 남성신에 대한 이름을 극복하기 위해 성령에 대해 여성적인 상징을 부여하면서 거룩한 성령을 여성의 용어로 추론하였다.[113] 나아가 존슨은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 하나님의 남성성과 여성성을 동등하게 부여하여 여성 역시 하나님의 모상으로 창조되었음으로 여성이 하나님을 재현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명확히 함으로 여성의 존엄성을 회복하는데 공헌하였다.[114]

3. 한국 교회의 가부장적인 모습들

한국에 기독교가 전래될 때 기독교는 일정부분 사회개혁적이고 변혁적인 역할을 하였다. 기존의 가부장적인 유교문화의 인습을 타파하고 사회 정화운동과 소외된 자들에 대한 돌봄의 사역이 이루어졌다. 그러한 과정에 억압된 여성들의 구조적인 모순을 보고 여성 해방을 위한 일들을 하였다. 여성들을 교육하고 여성들이 사회에 진출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한국적인 상황에서 유교의 가부장적인 문화 더불어

---

111 강남순, *현대여성신학*, 273.
112 Ibid., 274.
113 Johnson, 84.
114 Ibid., 91.

기독교의 가부장적인 요소들이 융합하여 더욱 가부장적인 것이 강화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로 다른 종교인 유교와 기독교의 만남은 가부장적인 부분들을 더욱 공교하게 하는 경향을 갖게 하였다. 줄리아 칭(Julia Ching)은 "한국 기독교인들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동북 아시아의 여러 나라 기독교인들과 마찬가지로 유교적 배경과 가치관을 가진 기독교인"이라고 지적하였다.[115] 따라서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유교적인 문화의 배경 안에서 기독교를 인식하고 받아들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한 유교적인 가부장적인 문화의 배경과 더불어 기독교의 가부장적인 요소들을 비판없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 것이다.

강남순은 "한국 기독교가 성숙한 기독교의 모습을 이루어 나아가는데 기독교 외적인 커다란 장애가 되는 것 중에 하나를 유교문화"라고 보았다.[116] 무엇보다 유교의 남성중심의 가부장적인 문화가 기독교와 만남을 통해 더욱 강화됨으로 기독교가 한국에 뿌리 내리는데 일조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강남순은 "한국 기독교 안의 유교적인 가족주의 영향으로 인하여 교파주의, 남성우월주의 영향으로 인한 성차별주의, 그리고 유교의 강한 현상유지적 성향으로 인한 보수주의"라고 주장한다.[117] 이러한 유교적인 성향으로 "한국 기독교는 자기가 속한 교단이나 교회가 기준이 되고, 최고가 되어 옳고 그름의 판단보다는 지연적이거나 혈연적인 관계에서 이해하는 분파와 배타적 교파주의로

---

[115] 강남순, *페미니즘과 기독교*, 97.

[116] Ibid., 98. 강남순은 유교에 대해 평등주의적 또는 해방주의적 관점의 결여로 인해 기독교의 해방적, 변혁적 요소를 차단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하였다.

[117] 강남순, *페미니즘과 기독교*, 103.

흐르게 되었다"고 강남순은 비판하였다.[118]

또한 유교의 위계적인 남성중심주의는 남아선호사상과 남성우월주의 사상이 나오게 하여 남자만이 가족의 중심이고 가계를 이을 수 있기 때문에 여성에 대한 성차별을 가져오게 하였다. 이로인해 교회의 지도력이 전적으로 남성에 의해서 독점되어서 여성을 지도자로 세우는 일이나 양성하는 것에 대해 철저히 배제하였던 것이다.

한국에서 유독 보수적인 기독교회가 강하게 형성되는 것도 유교의 현상 유지적 성향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박봉배는 "유교의 원형적 역사관은 인간의 역사를 회귀와 반복의 원칙을 따르는 것으로 보고 있어서 인간의 의지로 시도되는 변혁을 긍정적으로 보기 어렵게 한다"고 보았다.[119] 이러한 성향으로 인하여 유교는 불의한 것이나 잘못된 것을 개혁하거나 바꾸려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강남순은 "유교에서 기독교의 예언자적 정신이나 개혁적인 정신을 찾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았다.[120] 이러한 유교의 강한 현상유지적 성향의 영향을 받은 한국 기독교는 더욱 보수적인 성향으로 치우지게 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유교가 한국 기독교의 배타성, 남성중심성, 보수성에 영향을 끼쳤음을 부인할 수 없다. 오늘날 한국기독교가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는 이유도 이러한 유교적 한국기독교의 성향 때문이라고 보인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혈연과 지연과 학연를 중심으로 한 배타적인 유교적인 구습들을 벗어버리고 열린마음으로 포괄적인

---

[118] Ibid., 104.

[119] 박봉배, "전통문화의 변용과 기독교," in *한국사회와 교회*, ed. 이원규 (서울: 나단, 1989), 241.

[120] 강남순, *페미니즘과 기독교*, 111.

공동체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사회의 부정의에 대해 개혁하고 변화하는 기독교 본래의 예언자적인 사명을 회복해야 한다. 또한 남성중심이 아니라 남녀 평등의 관점에서 여성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함으로 교회 안에서 성차별적인 요인들을 제거해야 할 것이다.

III. 양성평등이란 무엇인가?

양성평등이라는 뜻은 말 그대로 남성과 여성이 평등하다는 의미이다. 남성과 여성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차이를 떠나서 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가지고 있고, 이는 모든 인간은 존재론적인 가치만으로 존중받아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가부장적인 유교문화에서는 남성과 여성의 생물학적인 차이를 차별로 인식하여 여성을 비하하고 차별하고 불평등하게 대하였다. 그리하여 여성의 존엄성은 거부되고,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서 여성들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였다. 이러한 뿌리 깊은 차별과 불평등은 오늘날 헌법과 법률이 평등권을 보장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본 장은 양성평등의 의미와 핵심 가치를 점검하고, 교회에서 양성평등을 위해 어떻게 실천해야 할지를 연구하고자 한다.

A. 양성평등의 의미

양성평등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다양한 정의들이 있다. 학자들마다 다른 관점과 의미로 양성평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남녀 간의 차별이 없는 평등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양성평등이라는 말은 영어의 Gender Equality를 우리말로 번역한 단어이다. 성에 해당되는 영어 단어는 Sex와 Gender이다. Sex는 생물학적이고 행위중심의 성을 의미하고, Gender는 남성성, 여성성으로 사회문화적으로 학습된 성을 의미한다. 김모란은 이 두가지 성이 평등하게 어우러지는 상태를 양성평등이라고 정의한다.[121] 이재옥은 "남녀 간의 본래적 성 차이는 없으며 여성성과 남성성은

[121] 김모란, 96,

후전적으로 습득되며 이때 양성의 특성은 동등하다"고 하였다.[122] 또한 김양희는 "성에 따라 남성과 여성의 능력과 속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가지지 않으며, 여성에 대한 편견에서 자유롭고, 여성의 권리와 인권에 반하는 차별적인 행동을 승인하거나 채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를 수정하기 위한 제도와 정책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태도"라고 정의한다.[123]

한국여성단체연합은 "남녀 평등은 남녀 차별이라는 차별적 개념을 전제로 한 것에 반해 양성평등은 남녀 공존이라는 화해적 의미를 함축하고 서로 조화로운 관계"로 정의한다.[124] 한국여성개발원은 양성평등을 정의하기를 "완전한 인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발전에 기여하는 잠재력을 남녀가 동등한 조건에서 동등하게 가지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125]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나는 양성평등은 생물학적인 차이로 남녀를 차별하거나 불평등하게 대하지 않으며 각각의 성에 대해 존엄성과 가치를 부여하고 자아를 실현하며 능력을 발휘하는데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B. 양성평등의 핵심 가치

이상과 같이 양성평등의 의미는 관점에 따라 다양한 정의로 이해되었다. 이러한 의미를 기초로 양성평등에 대한 근본적인 핵심 가치가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그것은

---

122 이재옥, 217.

123 김양희 et al., 23

124 박선영 et al., "부모의 양성평등의식 및 유아 양성평등교육 요구도 조사," in *유아연구* vol. 19 no.1 (서울: 숙명여자대학교 아동연구소, 2006), 101.

125 Ibid.

남녀의 성 차이를 떠나 인간으로서 존엄하며, 남녀가 평등한 인간으로서 자아를 실현하고 능력을 발휘하는데 있어서 기회가 균등해야 하며, 여성으로서 누구에게 구속되거나 억압받지 않고 독립되고 주체적인 자아로서 존재임을 볼 수 있다.

1. 인간의 존엄성

양성평등은 인간으로서 존엄하다는 천부 인권의 원리에서 시작된다. 인간은 태어나면서 자유로운 의사결정권과 평등한 권리를 가지며, 동등한 인격으로 대우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남성만이 아닌 여성에게도 동등하게 주어진 것이다. 이러한 인간존중의 정신은 세계인권선언과 대한민국헌법 등에서 잘 드러나 있다. 세계인권선언은 1948년 12월 10일 유엔 총회 결의 제217호에 의해 채택되어 선포된 것으로 제 1조에 보면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동등한 존엄성과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제시되어 있다.[126] 즉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가 존중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인간의 존중을 실현하려는 노력은 대한민국헌법에도 드러나 보인다. 대한민국헌법 제2장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로 명시되어 있다.[127] 인간의 존엄성이 대한민국의 중요한 가치임을

[126] 네이버 지식백과, "세계인권선언,"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720340&cid=47336&categoryId=47336(Accessed Aug 30, 2015).

[127] 국가정보법령센타, "대한민국헌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61603&efYd=19880225#0000(Accessed Aug

밝히고 있는 것이다.

캐디 스탠톤(Elisabeth Cady Stanton)은 1828년 여성의 정치적 평등과 참정권을 요구하기 위해 미국 뉴욕의 웨슬레이안 채플에서 읽어던 선언문에서 “모든 남성과 여성은 동등하게 피조되었으며 그들은 창조주로부터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받았고 이러한 권리들 중에는 생명, 자유, 행복의 추구의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였다.[128] 이러한 인간 존엄의 사상은 성서에도 나타난다. 창조주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면서 ‘하나님의 형상 곧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였다.[129]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신적인 요소가 그 안에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한 신적인 요소를 부여받은 인간은 신에 버금가는 존엄성을 소유하고 있음을 성서는 증언하고 있다. 그러므로 인간의 존엄은 남녀 성별에 관계 없이 평등하고 소중하며 인간으로서 존중받으며 행복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그 누구도 그러한 권리를 제약하거나 침해할 수 없는 것이다.

2. 기회의 균등

인간의 존엄의 가치는 기회의 균등으로 표현되고 확장되어야 한다. 근대에 여성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인권이 신장되면서 여성이 교육을 받게 되고 여성의 사회 참여의 기회가 넓어지기 시작하였다. 여성의 공적이고 형식적 교육의 확대는 확실히 여성의 지위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리하여 여성이 사회 각계각층에 진출하여

30, 2015).

[128] 박충구, “성차별 문화와 한국교회,” in *기독교사상* 1995년 2월호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5), 146.

[129] 창세기 1장 26, 27 (개역개정판).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자아를 실현하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여성 정치가, 여성 사업가, 여성 성직자 등 많은 여성들이 지도력과 능력을 발휘되는가 하면 그동안 금녀의 영역으로 여겼던 여성 경찰, 여성 군인들도 배출하여 사회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이러한 여성의 진출이 온전한 기회의 균등이라고 하기에는 아직 미흡하다고 본다. 여전히 남녀 간 임금 격차의 문제, 직장여성의 출산 문제, 직장 내 승진 불평등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남녀의 기회의 균등에 대해 아직도 풀어야 할 문제들이 산재해 있다.

1980년대도에 나온 UN보고서에 의하면 여성들은 세계에서 필요로하는 노동의 60%를 하면서 10%의 임금을 받으며, 오직 1%의 재산만 소유하는데 반해 세계 재산의 99%는 40%의 노동을 하는 남성들에 의해서 소유된다고 한다.[130] 그 만큼 여성들의 노동과 임금의 불평등이 지속적으로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보고서이다. 2005년도 한 조사에서 여성의 64.3%가 구직할 때 성 차별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나이가 많다고 거절당한 경우 37%였고, 직무 차별이 28.8%, 결혼 여부 19.1%, 외모 차별이 12,7% 순이 였다.[131]

또한 회사 입사 후 성 차별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 여성들의 업무 배치에서 30.3%가, 승진에서 31.7%가 성차별을 경험한 반면, 남성들은 이러한 부분에서 겪은 성차별에 대해 각각 9.6%, 7.5%로 성차별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는 정도가 남녀에 따라 크게 차이 날 뿐만 아니라 의사 결정권자인 남성들은 이런 성차별

---

[130] 강남순, *페니지금과 기독교*, 195.

[131] 권인숙, 265.

문제를 거의 느끼지 못한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132] 특별히 결혼과 출산의 문제는 많은 회사들이 고용에 있어서 여성을 차별하는 가장 큰 이유이다. 여성이 직장생활하는데 가장 어려운 요소에 대한 조사에 따르면, 결혼 및 육아문제 43%, 근로조건 불평등 21.9%, 가사병행 17.4%, 사회적 편견 14,7%로 조사되었다.[133] 이러한 조사 결과만 보더라도 여성이 사회에 참여하고 직장을 갖고 자기를 실현하는데 많은 어려움과 난관이 있음을 보게된다. 이러한 불평등한 사회 인식과 구조 속에서 여성들에게 기회 균등이라는 것은 멀게만 느껴진다.

유선경은 "사회가 체계적으로 여성을 배제하는 불평등 구조 하에서 기회의 평등은 간접적인 차별을 만든다"고 보고 이에 따른 대안으로 '조건의 평등의 개념'을 사용하였다.[134] 이는 "상대적 평등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으로 여성이 남성과 동등하게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선결조건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135] 이를 통해서 기회의 균등을 갖지 못하는 여성에 대해 기회를 갖도록 조건을 만들어 주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양성평등론자들은 여전히 "근본적인 문제는 교육의 불평등으로 인해 이것이 성별, 계층별 불평등 구조를 만들어서 그대로 노동시장에 영향을 주어 남성 관리자와 여성 노동자, 남성 교장과 여성 교사들의 구조를 형성한다"고 비판하였다.[136]

---

[132] Ibid., 277.

[133] Ibid., 284.

[134] 유선경, "부모의 양육태도 및 양성평등의식과 성지식 성태도와의 관계" (M.A. thesis,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2010), 9.

[135] Ibid.

[136] 이덕주, "중학교 국어 교과서의 문학작품에 나타난 성차별적 요소 분석" (M.A. thesis,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1999), 16.

그러므로 양성평등이 지향하는 가치는 남녀의 생물학적인 성(Sex)의 차이를 사회문화적 성(Gender)의 차이로 차별하지 않고, 남녀 모두에게 잠재되어 있는 특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의 균등의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3. 여성의 주체성

한 인간으로서 여성을 열등하거나 비성숙한 존재로 규정하는 것은 여성의 존엄과 주체성을 부인하는 것으로 차별과 불평등을 야기하는 근거가 될 것이다. 가부장적인 유교의 문화에서 여성은 주체적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규정한다. 여성의 정체성은 모성을 통해서만 인정받게 되었고, 남성에 순종하는 것으로 인정받는 여성으로서 부정적인 자아상이 형성되었다. 이로 인해 여성은 자신의 인생을 주체적으로 결정하지 못하고,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배제되어 왔다. 시몬느 드 보브와르(Simone de Beauvoir)는 "주체로서 남성과 타자로서의 여성을 구분하는 것을 비판하면서 그녀는 여성을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에서 여성의 정체성"을 이해하였다.[137] 그러므로 나는 가부장적인 문화의 틀에 규정되어지는 여성이 아니라 주체성을 가지고 여성이 새롭게 만들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한다고 본다.

본 연구는 이러한 주체적인 여성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 덕목으로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 모든 것에 자율적인 참여, 그리고 부족함에 대한 보완으로서 상호협력을 제시한다. 책임, 참여, 그리고 상호협력은 여성으로서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

[137] 김은혜, "양성평등을 위한 새로운 한국교회 여성운동," in *한국신학여성* 2009년 69호 (서울: 한국여성신학, 2009), 27.

덕목이라고본다. 첫째, 책임은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으로 삶을 계획하고 진행하는 과정, 그리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지는 것이다. 볼프강 후버(Wolfgang Huber)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인간은 인간 서로 간에 책임이 주어졌고, 그것은 남녀 상호 관계에서 형성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138] 가부장적인 유교문화 안에서 여성은 책임을 질 일이 거의 없다. 모든 것이 남편에 종속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만 그러한 현실의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에 익숙해 있었다. 그러나 주체적인 한 인간으로서 자신의 일에 책임의식을 갖는다는 것은 그 안에서 여성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하는 것이다.

둘째, 주체적인 인간으로서 필요한 다음 덕목은 자율적인 판단에 따른 참여이다. 가부장적인 유교문화 안에서 여성은 자율적인 참여가 불가능했다. 여성은 철저히 남편의 말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위계적인 관계에 놓여있었기 때문이다. 여성 스스로가 주체적인 판단을 함으로 모든 일에 자율적인 참여하고 행위의 주체로서 그 안에서 여성의 정체성을 갖게 되는 것이다.

셋째는 남성이든 여성이든 완전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부족함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상호협력해야 한다. 하워드 스나이더(Howard Snyder)는 "남성이나 여성 어느 한편도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기 위해서는 남성과 여성이 동역자의식이 있어야 하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야 한다"고 보았다.[139] 그러기 위해서는 그동안 여성으로서 겪었던 고통과 억압의 상처에서 억압의

---

[138] Wolfgang Huber and Heinz Eduard Lodt, *Menschenrechte 인권의 사상적 배경*, trans. 주재용 and 김현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2), 222.

[139] Howard Snyder, *Liberating the Church : The Ecology of Church & Kingdom* 참으로

주체자인 남성과의 화해와 치유를 위해 남성과의 관계 회복을 전제한다. 그러한 관계 회복이 있을 때 비로서 남성과 여성은 더욱 발전적인 상호협력적인 관계를 형성하게 될 것이다.

C. 양성평등을 위한 이론적 기초

지금까지 유교의 가부장적인 문화와 기독교의 가부장적인 요소들로 인하여 여성을 차별하고 불평등하게 대한 것을 고찰하였다. 이러한 잘못된 행동들에는 유교의 가부장적인 문화와 그리스 철학의 이원론, 그리고 성서의 가부장적인 요소들에 근거한 사상적인 배경에 기초하고 있다. 따라서 본장에서는 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양성평등을 기초한 이론적인 근거를 성서에서 점검하고, 신학적, 교회론적 기초에서 양성평등의 인식을 새롭게 함으로 그 실천을 위한 기초를 세우고자 한다.

1. 양성평등을 위한 성서적 기초

성서에는 남성은 우월하고 여성은 열등한 존재로 묘사하는 부분들이 있는가 하면 양성평등의 원리를 묘사하는 부분도 나온다. 이러한 모순이 양존하는 가운데 여성을 억압하는데 정치적으로 성서를 해석하고 이용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성서 해석에 대한 관점에 그림케(Sarah Grimke)는 “성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가부장적인 성서번역이나 해석에 문제가 있다고 보며 성서의 절대적 권위는 인정하나 잘못된 번역과 해석이 문제”임을 지적하였다.[140] 스탠턴은 “성서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가부장주의적

해방된 교회, trans. 권영석 (서울: IVP, 2005), 325.

[140] 강남순, *페미니즘과 기독교*, 272.

요소들”을 더욱 문제시하였다.[141] 본 연구에서도 성서는 모든 신학적이고 실천적인 권위의 근거라는데 나는 동의한다. 그러한 권위의 근거인 성서를 어떠한 시각으로 보고 해석하느냐는 매우 중요하다. 그동안 잘못된 번역과 해석에 의해서 억압과 차별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바로 잡고 남녀 평등의 관점에서 성서를 균형있게 볼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성서에는 양성평등을 지지하는 다양한 표현들이 존재한다. 본 연구는 인간의 존재론적 입장에서 남성과 여성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근원적인 존재로서 평등을 논하고자 한다. 이를 뒷받침하는 성서의 본문은 창세기 1장26절과 27절이다.[142]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남녀의 동등성을 묘사하는 표현이며 양성평등의 원리에 근거가 된다. 여기서 사람이라는 아담은 남성과 여성의 동의어이며 이를 3인층 단수 대명사로 받을 때 남성과 여성으로 이루어진 사람이 하나의 통일성을 지닌 존재로 해석된다.[143]

또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의미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있지만 위르겐 몰트만(Jurgen Moltmann)은 “하나님의 형상은 자유롭고 동등하게 창조된 것으로 의미하며 여자와 남자의 관계에서 그들이 가진 동등함과 그들이 가진 독특성을 조화를

---

[141] Ibid.

[142]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개역개정판).

[143] 침례신학연구소, *교회와 여성의 리더십* (대전: 침례신학대학교출판부, 2006), 19-20.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한다.[144] 칼 바르트(Karl Barth)는 하나님의 형상을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는 존재라는 측면에서 이해하였고 인간이 "하나님의 대표자 혹은 대리자"로 세워짐으로 이해하였다.[145] 이처럼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주어진 최고의 권리는 자유롭게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땅을 관리하며 다스리게 되었다.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하고 하나님을 대리하는 자로서 인간은 그러한 권리를 누리고 수행하는데 있어서 우월하거나 열등하지 않고 서로 평등하다.

후버(Wolfgang Huber)는 인간의 인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에 근거하여 만인 평등과 인간 존엄이라는 사상을 도출하였다.[146] 그는 인권을 논할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에 근거하여 그의 사상을 전개하였다. 카이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노동하고 가족을 이루고 문화를 일으키고 환경을 돌볼 명령을 받는데 이 모든 일은 남성과 여성의 공동책임 아래 주어졌다"고 하였다.[147] 스나이더 역시 "여자가 남자의 하위에 종속되거나 남자의 권위하에서만 다스린다는 어떠한 암시 없이 남녀는 하나님의 공동 청지기로 함께 다스리는 것이 명백한 사명이다"고 하였다.[148] 스나이더는 나아가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을 위해 그리고 서로를

---

[144] Jurgen Moltmann. *Erfahrungen Theologischen Denkens: Wege und Formen Christlicher Theologie 신학의 방법과 형식 – 나의 신학여정*, trans. 김균진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2), 307-08.

[145] 김세윤, 57.

[146] Wolfgang Huber et al., 219.

[147] Mardi Keyes, 6.

[148] Howard Snyder, 325.

위해 창조되었다"고 주장하였다.[149]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이 땅을 공동 청지기로서 관리와 다스림에도 남녀평등과 상호협력의 남녀관계가 형성되었던 것이다.

2. 양성평등을 위한 신학적 기초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기독교의 양성평등 원리의 근거는 성서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에 근거하여 남녀의 동등성과 평등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양성평등의 원리를 신학적인 작업을 통해서 찾고자 하여 그동안 여성 신학자들을 중심으로 노력해왔다. 양성평등의 원리를 위한 신학의 대표적인 연구는 가부장적인 이미지를 주는 하나님의 남성성에 대한 논의였다. 하나님이 남성이고 아들이 남성이라는 표현은 교회나 가정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은유적으로 내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한 영향으로 남성중심적이고 가부장적인 하나님을 통하여 남성에 의한 여성의 지배를 정당화하면서 남성과 여성의 동등성을 거부해 온 것이다. 그러한 남성적인 하나님에 대한 상징에 반대하여 나온 것이 여성의 이미지로서 하나님이였다. 남녀 평등주의 신학자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여성적인 이미지를 부각하며서 남녀의 평등을 주장하기도 하고 중성적인 개념의 하나님 이미지를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김영관은 이러한 "남성성, 여성성, 중성성의 이해는 많은 해석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실존주의적인 이해를 통해 양성평등의 신학적인 원리를

---

[149] Ibid.

찾고자 하였다.[150] 그는 남녀 모두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동등하며 삼위 하나님의 상호적이고 의존적인 상관성에 기초한 존재론적인 방식을 통해 남녀평등의 근거를 두었다.

이러한 김영관의 주장은 몰트만의 사회적 삼위일체론을 근거로 한 것이였다. 몰트만의 사회적 삼위일체론은 여성 신학자들이나 양성평등주의 자들이 주장하는 남녀 평등의 원리를 지지하는 신학적인 근거가 되었다.[151] 본 연구는 몰트만의 사회적 삼위일체를 통해 양성평등의 신학적인 원리를 찾고자 한다. 몰트만은 가부장적인 하나님 아버지 개념을 비판하고 "아버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일 뿐이며 하나님 아버지는 남성적인 아버지인 동시에 모성적인 아버지이고, 독생자의 어머니적인 아버지요, 아버지적인 어머니"라고 하였다.[152] 이러한 관점은 양성적이고 성을 초월한 것으로 해석되어 진다. 몰트만은 "삼위는 인격과 관계에 있어서 상호관계에서 이해하였고, 서로 상대방을 보완하는 관계로 인격은 관계를 통하여 나타나고, 관계는 인격을 통하여 형성된다"고 보았다.[153] 그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론적인 동등한 관계를 인격과 관계 안에서 상호 보완하고 협력하여 작용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

[150] 김영관, 123.

[151] 이난희, "삼위일체론에 대한 여성신학적 연구," in *한국여성신학* 2008년 67호 (서울: 한국여성신학, 2008), 52-73. 대표적인 개혁적 여성신학자인 엘리자벳 A. 존슨이나 캐더린 라쿠냐(Catherine Mowry Lacugna)는 남녀 평등을 위한 신학적인 근거를 몰트만의 사회적 삼위일체론에 두었다. 그녀들은 전통적인 남성 중심의 신학을 비판하고 해체하며 이를 재구성하여 여성의 주체성을 강조하려는 입장이였다. 존슨의 경우 '소피아'라는 여성적 언어를 제시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을 재명명하고 재구성하여 상호관계성과 동등성에 기초한 삼위일체론을 주장하였다. 라쿠냐는 삼위 하나님은 인격적인 속성에 의한 서로 친교적인 관계 안에서 존재한다고 보았으며 삼위일체 하나님을 묘사하는 표현으로 '친교 안에 인격들(person in communion)'의 개념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삼위일체에 대한 존슨의 언어적 접근과 라쿠냐의 관계의 존재론적 접근을 통해 남녀 평등의 원리를 찾는데 중요한 신학적인 근거가 될 것이다.

[152] Jurgen Moltmann, *Trinitaet und Reich Gottes 삼위일체와 하나님의 나라*, trans. 김균진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2), 199-200.

[153] Ibid., 208.

몰트만은 삼위일체를 설명하기 위해 '페리코레시스(perichoresis)'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154] 이는 성부 성자 성령의 동질적이며 신적인 품격들이 상호 내주는 것으로 비계급적인 사귐 안에서 삼위의 상호 주체성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였다.[155] 이러한 삼위 간의 사귐은 남성과 여성 사이의 지배와 억압이 없는 상호간의 존중과 인정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몰트만은 이러한 "삼위일체적 하나님의 순환론적인 일치는 초대하고 결합하는 일치로 인간과 세상에 개방적인 일치로 확장되어 인간과 세상을 향해 열려 있다"고 주장하였다.[156] 이러한 몰트만의 삼위일체의 순환론적인 일치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 왜곡되고 잘못된 것을 해방하고 불의의 사회체계를 변혁하는 논리로 발전하게 된다. 몰트만의 이러한 삼위일체의 인식은 교리적인 신학에서 벗어나 사회의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세우는 사회참여적인 신학으로 발전되었다.

본 연구에서 나는 이러한 몰트만의 삼위일체 신학이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인 잘못된 가치체계와 사회적인 불평등과 차별에 대해 변혁하고 개혁해야 할 범위를 포괄한다고 본다. 몰트만은 가부장제를 비판하면서 "남성도 역시 가부장제의 피해자로 여기고 남성도 온전한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가부장주의 기형화를 극복해야 한다"고 하였다.[157] 이를 위해서 몰트만은 가부장적인 유일신론을 거부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

[154] 페리코레시스는 명사형으론 선회, 회전이라는 뜻이고, 동사형으론 차례로 돌다, 순회하다. 포옹하다, 포괄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다. 이는 사랑의 관계성에 대한 언어로 삼위가 상호 순환하고, 내주하고, 침투한다는 것이다.

[155] 위르겐 몰트만, *신학의 방법과 형식-나의 신학여정*, 336-38.

[156] Ibid., 344.

[157] Jurgen Moltmann, *In der Geschichte des Dreieinigen Gottes 삼위일체와 하나님의 역사*, trans. 이신건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8), 54.

특성을 공동체적이고, 연합적이며, 그리고 상호간의 풍성한 관계 안에서 분열된 것을 고치고, 나누어진 것을 결합시키는 것"으로 보고 이러한 삼위일체적 하나님 개념을 가부장적인 유일신론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하였다.[158] 그러므로 몰트만의 사회적 삼위일체론은 남녀의 성차별을 극복하고 남녀의 평등한 관계성을 확립하여 양성평등을 이루기 위한 신학적 근거가 될 것이라고 본다.

3. 양성평등을 위한 교회론적 기초

그동안 유교적인 가부장적 문화와 기독교의 가부장적인 요소들로 인하여 교회 안에서 지속적인 성차별과 불평등이 심화되어 왔다. 그러나 21세기 새로운 패러다임을 추구하는 운동들이 일어나면서 사회문화적인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여성에 대한 인식의 전환으로 여성주의 운동에 힘입어 여성신학의 학문적 발전과 양성평등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면서 교회 내에서 한국문화와 기독교 신학전통에 나타난 성차별과 불평등에 대해서 진지한 성찰을 하기 시작한 것이다. 따라서 앞서 양성평등을 위한 성서적이고 신학적인 고찰에 기초해 양성평등적인 교회론을 근거를 세우고 한국교회 안에서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인식론적인 틀을 세우고자 한다.

이를 위해 여성 신학자들 중에서 교회 전통에서 개혁을 말하고 교회 본성을 여성신학적인 교회론의 관점에서 주장한 류터의 교회론을 살펴보고자 한다. 류터의 여성신학적 교회론의 기본적인 입장이 기존 교회 전통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 전통을 재해석하고 비판적인 성찰하면서 현장과 신학의 끊임없는 대화의 변증법적인 노력을

---

[158] 위르겐 몰트만, *신학의 방법과 형식-나의 신학여정*, 313-14.

통해 결과를 도출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 나는 그녀의 신학적인 입장을 모델로 삼고자 한다.

류터의 여성신학적인 교회론의 핵심은 역사적이고 제도적인 교회의 가부장적인 것을 고발하고 먼저 가부장적인 것을 분리하고 제거하는 것으로 특히 하나님에 대한 남성적인 이미지를 제거함으로 아버지이며 어머니인 "양성신(God and Goddess)" 개념의 하나님을 제시하였다.[159] 또한 류터는 "교회 안에서 남성중심의 언어, 제의, 상징, 가르침, 행정 등의 폭력적이고 모욕적이며 가증스러운 행위"를 비판하였다.[160] 나아가 류터는 "비판과 변혁의 표지로서 교회는 가부장제로부터 인간을 해방하여 여성을 타자의 자리에서 주체의 자리로 회복하여 새로운 관계 양식 즉 어떠한 위계적 형태도 없는 동등성과 서로 다른 존재방식을 인정해 주는 상호성을 행해 나아가는 교회이다"라고 주장한다.[161]

류터는 "기독교 역사에 교회의 두 모델로 역사적 제도로서 교회와 영으로 충만한 공동체 사이에 긴장과 갈등의 역사로 설정하고 역사적 제도로서 교회는 계급과 위계질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영으로 충만한 교회는 위계질서의 틀을 벗어나 상호성과 은사중심의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하였는데, 교회는 이 두 요소 사이의 변증법적 상호작용으로 존재해왔다"고 주장한다.[162] 류터는 이처럼 가부장적인

---

[159] 이우정, *여성들을 위한 신학*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3), 366.

[160] Ibid.

[161] Rosemary Radford Ruether, *Women-Church*: Theology and Practice of Feminist Liturgical Communities (San Francsco: Haper & Row Publishers, 1985), 5.

[162] Ibid., 11-24.

교회로부터 해방하기 위해 새로운 제의와 믿음의 공동체로 "여성-교회(Women-Church)"를 제시함으로 탈가부장제이면서 자율성을 가진 공동체를 이루기를 원하였다.[163]

류터는 양성평등적 교회를 위해서 무엇보다 "남성중심의 성직주의의 해체와 더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해 상호 섬김을 기초로 한 기능적인 교역을 제시함으로 다양성을 인정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 다양한 기술과 재능을 가진 사람들을 활성하여 충만한 공동체를 이룰 것"을 제시하였다.[164] 류터는 성직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위계적이고 권위적인 성직주의를 비판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류터는 남성중심의 성직에서 벗어나 평신도를 중심으로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특히 여성의 지도력을 확대하며 은사와 능력에 따른 기능적인 사역이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질 것을 주장하였다.[165] 그러므로 나는 교회 공동체에서 여성의 주체성을 회복하고 남녀 평등 공동체를 이루어 성도의 다양한 은사를 기초로 기능적인 사역을 통해 섬김의 동역을 이루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야 한다고 본다.

D. 교회에서 양성평등의 실천

양성평등을 위한 한국교회의 제일 시급한 과제는 여성에 대한 평등적인 이해이다. 앞에서도 확인했듯이 기독교 선교 초기 교회는 유교적 가부장적인 문화에 억합된 여성의 성차별과 불평등 구조를 바꾸기 위한 해방적인 복음의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가부장적인 사회를 극복하지 못하고 오히려 기존의 가부장적인 문화 요소들이

---

163 Ibid., 62-63.

164 Ibid., 91.

165 Ibid.

기독교의 가부장적인 요소들과 더불어 더욱 강화되어 여성의 성차별과 불평등은 더욱 고착화되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평등 공동체로 차별이 없어야 할 교회가 여성에 대해서는 유독 잘못된 유교 문화와 기독교 신학의 전통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때문에 나는 교회 내 이러한 잘못된 문화와 전통을 극복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회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이 이러한 여성의 차별과 억압한 문화와 전통을 인식하고 함께 해결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기독교의 전통과 신학을 비판하고 새롭게 평등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것 역시 쉬어 보이지는 않는다.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보수성은 이러한 변화와 도전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 지 기로에 서 있다. 그러나 개신교의 뿌리인 개혁교회의 모토인 '개혁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한다'는 슬로건처럼 개혁교회의 정신으로 이러한 교회의 잘못된 전통과 신학, 그리고 실천에 대해 우리 남녀 모두는 함께 노력해야 한다. 다음 장에서는 교회 안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하고자 한다.

1. 양성평등을 위한 법과 제도 확립

본 연구에서 나는 교회 내에서의 양성평등을 위해서 성서적이고 신학적이며 교회론적인 이론의 기초를 세운 후에 이를 실천하기 위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나아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교회 안에 법과 제도를 만들어서 모든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이를 배우고 훈련하여서 교회와 가정과 삶의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계몽주의 이후 인권에 대한 인식의 변화로 여성의 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여성주의 운동으로 여성에 대한 참정권이 주어지며 여성의 인권이 신장되었다. 1948년 유엔의 세계인권선언, 1960년 유네스코의 교육차별금지협약, 1979년 유엔의 여성차별철폐협약을 채택하여 여성차별금지와 권리보장을 하였다.[166] 특히 1995년 유엔 4차 세계여성대회에서 채택된 북경행동강령은 양성평등의 필요성을 부각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이 강령은 모든 법률과 정책에서 성관점을 통합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세계 각국 정부는 성 인지적 관점에서 자료를 고안하고 분석하여 성 주류화(Gender Mainstreaming)를 도모하기 위한 훈련을 제공할 것을 권고하였다.[167]

한국에서도 이러한 시대적 흐름의 영향으로 1980년대부터 양성평등을 위한 노력이 시작되었다. 1987년 남녀평등고용법, 1989년 가족법과 모자보건법, 1992년 성폭력 특별법, 1995년 남녀고용평등법과 여성발전기본법, 1997년 가정폭력방지법, 1999년 직장에서 성희롱 금지를 포함한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법이 제정되었고, 2005년에는 호주제가 폐지되었다.[168] 또한 2015년 7월1일부터는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개정되어 실행되었다. 이러한 법적인 노력 들은 모든 영역에서 여성과 남성의 동반 성장을 위한 시책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정책결정과정과 공직, 정치, 경제활동 등 사회 전 분야에서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참여를 도모하기 위한

---

166 배유경, “여성주의 관점에서 본 한국 양성평등교육에 관한 연구” (Ph.D. diss,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5), 43.

167 김진화, *양성평등 교육체계 및 프로그램 개발* (부산: 부산광역시, 2006), 3.

168 이은선, 165.

것이다.[169] 특별히 2001년 국가조직에 여성부를 설치해 여성정책을 만들고 남녀차별 개선을 위한 업무를 담당하도록 했다. 2015년 현재 여성가족부로 개편되어 일 가정 양립과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해 정책을 세우고 실행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여성을 위한 법적과 제도를 정비하고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해 노력해 왔다. 이러한 법과 제도적인 보완으로 그동안 성차별과 불평등의 문화와 악습들을 하나씩 고쳐 감으로서 양성평등의 사회로 조금씩 나아가게 되었다.

따라서 교회에서도 양성평등을 위한 법과 제도를 세워 실천하고 부조리한 문화와 전통을 계속해서 개선해 나갈 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양성평등이 조금씩 이루어질 것이다. 그동안 교회 안에서도 양성평등을 위한 노력들이 있었다. 한국의 감리교의 경우 여성에게 목사 안수를 허용한 것이 1931년이며 세계적으로 볼 때 여성안수의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였지만 여성감독이나 지도자들이 전무하고, 안수받은 여성들이 사역할 곳이 없다고 한다.[170] 2006년 양성평등 위원회가 처음 설립되어 활동한 것도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육국에서 시작되었다. 그 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에서 기존의 여성위원회를 양성평등 위원회로 개편하고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해 교육, 제도, 예산에 대한 정책적 제안이 2008년 제57차 총회에서 통과되며 구체적인 활동을 하기에 이르렀다.[171]

---

[169]여성가족부, "개정된 양성평등기본법," http://blog.daum.net/moge-family/8805(Accessed Jun 23, 2015)

[170] 강남순, *페미니즘과 기독교*, 351. 처음 안수받은 여성은 선교사들이였고 한국인 여성 최초는 1955년이라고 함.

[171] 임정혁, "위르겐 몰트만의 사회적 삼위일체론과 양성평등," in *한국여성신학* vol. no.

기독교장로교의 경우 2007년 양성평등위원회를 설립하고 본격적으로 활동에 이르며 2010년에는 전국 기독교장로회 소속 목회자와 신도를 대상으로 '양성평등 실태조사보고서'를 발표하고 적극적인 정책 입안에 활용하였다.[172] 특히 기독교장로교에서는 양성평등적 교회구조와 제도 확립을 위해 총회 공천위원회 여성 비율 50% 의무화, 총회 상임위원회등 의결기구에 여성비율 30%, 총회 여성총대 비율 30% 의무화를 2015년까지 이루기 위해 전략적으로 법과 제도를 만들어 추진하면서 양성평등을 위해 활발히 활동하였다.[173]

또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한국교회 양성평등을 위한 정책의 필요성을 느끼고 성서적인 근거와 더불어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교육을 하고, 제도들을 제정하여 교단과 교회에 이를 위한 실천 방안들을 나누고 있다. 특히 교회 내에 성차별적인 관행들을 분리해서 제거하고 여성을 위한 예산 배정을 하고 실행되도록 노력하고 있다.[174] 이러한 교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내가 속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은 2014년도에 총회훈련원 산하 특별위원회로 여성위원회를 결성해 여성 사역의 활성화와 양성평등의 필요성을 알리고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세미나를 통해 여론을 수렴하는

74호 (서울: 한국여성신학, 2011), 105.

[172] 기장 양성평등위원회, *한국기독교장로회 양성평등 실태조사 보고서* (서울: 한국기독교양성평등위원회, 2010), 38.

[173] 한국염, "왜 아직도 양성평등적 교회를 말하는가?," in *한국신학여성* vol. no. 69호 (서울: 한국여성신학, 2009), 41-3.

[174]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여성위원회," http://www.kncc.or.kr/sub02/sub05.php(Accessed Aug 30, 2015).

등의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175]

이처럼 다양한 한국 교단들이 양성평등을 위한 여성 사역의 필요성을 깨닫고 이를 위해 노력해 왔다. 이러한 사역들이 교회에서 뿌리내리고 정착되기 위해서 우리는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무엇보다 여성 사역과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성서적, 신학적, 교회론적인 근거를 정립하고 교육하고 훈련함으로서 양성평등의 인식을 확산시켜야 한다. 그리고 여성들이 정책 의결기구(총회, 노회, 당회 등)에 참여하도록 일정 비율을 배정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법과 제도를 세워 교회에서 성차별적이고 가부장적인 관행과 행동을 제거하도록 해야한다.

2. 교회내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노력

총회나 노회의 양성평등위원회나 여성 사역에 대한 정책들이 시행되고 적용되는 현장은 교회이다. 그러한 정책과 제도들이 각 교회의 현장에 맞게 시행되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서 여성 사역을 위한 여성위원회나 양성평등위원회의 기구를 두어야 한다. 그동안 교회의 가부장적인 문화와 의식을 벗어버리고 성 평등적인 의식과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를 구체적으로 다룰 위원회나 조직이 필요하다. 따라서 남성과 여성들이 함께 모여 교회 구조를 양성평등구조로 만들고 이러한 정책들이 교회 내에서 뿌리 내리고 지속적으로 시행되도록 관리하는 사역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내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양성평등위원회를 구성하고 실행을

[175] 대한예수교장로회, *99회기 총회여성위원회 정책세미나 자료집* (서울: 총회출판부, 2015), 20-22. 장로교 통합교단은 1996년 첫 여성목회자를 배출하였고 2105년 현재 1825명 여성목사가 있으나 2104년 99회기 총회 1500명 총대들 가운데 여성은 목사 5명 여성장로11명으로 극소수였다 .

위해서 다음 몇 가지를 제안해 본다. 첫째, 교회 내 양성평등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한다. 양성평등 인식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 조사를 하는 방법도 있다. 오랫동안 유교적 기독교적 가부장적인 환경에서 우리의 의식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성차별에 대한 것들이 교회나 가정에서 어떻게 자리잡고 있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특히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성차별적인 언어나 행동들, 설교에서 사용되는 성차별적인 언어들, 교회 안에서 사역하면서 겪게 되는 성차별적인 것들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정리해 본다.

둘째, 양성평등을 위한 교육과 훈련을 지속적으로 한다. 이는 매우 중요한 활동 중에 하나이다. 그동안 성차별에 대한 혹은 양성평등에 대한 교육과 훈련이 없었기에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이러한 생활을 해왔던 것이다. 성역할의 고정관념이나 성의식에 있어서 여성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바르게 고치기 위해서는 교육과 훈련이 반드시 필요한다. 교회 내에는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성경공부나 훈련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양성평등을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과 훈련은 전무하다시피 했다. 그만큼 이러한 훈련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했던 것이다. 이러한 프로그램과 훈련을 위해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그곳에 가서 훈련을 위탁받을 수 있고 또는 전문가를 직접 교회에 초빙하여 배울 수도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교회 내에 양성평등을 위한 전문 사역자가 배치되어 지속적인 훈련을 할 수 있다면 더욱 효과가 있을 것이다. 또한 목회자들이 매월 설교를 통해 양성평등을 강조하고 교육함으로서 교인들을 훈련하는 것도 좋다고 본다. 이러한 양성평등의 훈련을 위해 본 연구의 후반부에 교회 내 아버지들을 대상으로 그들에게 필요한 양성평등적 아버지상을 형성하도록 하기 위한

훈련 프로그램을 제시할 것이다.

셋째, 교회 내에서 이러한 양성평등이 실현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만드는 일이다. 무엇보다 여성들이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적인 배려가 필요한다. 당회나 제직회 부서나 그 리더의 자리에 전문적이고 능력있는 여성들을 세울 뿐 아니라 여성들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훈련과 지원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하여 의사결정기구 내에 일정 비율로 여성들에 자리를 할당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여성에 대한 사역에 대해 일정 비율 예산도 확보해야 한다. 여성 주일을 정하고 지키며, 여성을 위한 예배, 세미나, 강연, 수련회, 내적치유 등을 정기적으로 시행하여 여성을 위한 사역을 개발한다. 마찬가지로 양성평등을 위한 주일을 정하고 지키기, 여성의 삶을 체험하기 위한 역할극, 그동안 여성들이 하던 사역 체험하기, 우수한 양성평등 실천 가정이나 사역을 선정하여 시상하고 사례발표 등을 통해서 남성들의 양성평등 의식을 고취하게 한다. 그리하여 여성들이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배제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은사에 따른 사역을 개발하고 맡길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3. 여성 지도력 향상

교회에서 양성평등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성의 지도력이 향상 되어야 한다. 그동안 교회는 여성들의 지도력을 인정하지 못하고 리더로서 역할을 제한하였다. 여성의 지도력에 대해 특히 여성이 더욱 부정적이였다. 김은혜는 “여성이 여성의 교회 지도력과 리더십을 부정하는 것은 남녀의 근원적인 평등을 부정하는 남성 중심적인

신학전통에 근거한 부정적인 여성성에 있다"고 하였다.[176] 그러면서 김은혜는 여성이 여성의 지도력을 부정하고 의심하는 것은 "남녀의 근원적 평등성을 부정하는 남성중심적인 신학의 전통에 근거한 부정적인 여성에 대한 이해"로 보았다.[177] 그만큼 교회가 여성을 배제하여 여성 스스로 낮은 자존감을 갖도록 함으로 남성 중심의 지도력만 인정한 결과라 하겠다. 스나이더는 "교회에서 여성의 역할 문제에 여성의 지위를 이차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사역의 범위를 제한하였고, 성경이 규정하지 않는 사역자의 자격에서 여성을 배제하였다"고 주장하였다. [178] 이처럼 여성의 지도력을 인정하지 않는 남성중심적 교회에 대한 비판은 바로 성직계급주의가 그 핵심에 자리잡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179] 그러므로 나는 기회 평등의 관점에서 여성의 지도력을 개발하고, 발휘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본다. 그동안 남성중심의 지도력에 벗어나 여성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활용하여 교회 공동체를 함께 이루어야 할 것이다.

러셀(Letty M. Russell)은 "지도력을 가부장적 지도력과 여성 지도력으로 구분하는데 가부장적 지도력은 상하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자본가적 모델인 반면, 여성 지도력은 동반자 패러다임으로 공동체 내에서 분담하는 권위의 모델"이라고 주장하였다.[180] 그러한 여성만이 가지고 있는 성향의 지도력을 교회 공동체에 적용할 때 많은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이라고 본다. 죤 캠밸(Jaon Campbell)은 "여성들의 지도력의

---

[176] 김은혜, 17.

[177] Ibid.

[178] Howard Snyder, 323.

[179] 김애영, *여성신학의 주제 탐구* (오산: 한신대학교출판부, 2003), 215.

[180] 양미강, "러티 러셀의 Church in the Round," in *한국여성신학* vol. no. 봄호 (서울: 한국여성신학, 1996), 70.

스타일을 유연성, 친밀감, 관계, 연결, 그리고 열정”으로 묘사하였다.[181] 이러한 여성의 지도력 스타일이 최근에 주목을 받는 것은 그동안 남성중심의 지도력의 한계를 보완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러한 여성적인 지도력의 스타일과 남성의 지도력이 함께 팀웍을 이루고 서로 파트너쉽을 형성한다면 더욱 협력적이고 온전한 지도력이 발휘될 것으로 여겨진다.

[181] 김애영, 42.

IV. 양성평등적 아버지 상

본 장에서는 이러한 성 차별과 성 이해에 대한 고정관념을 바로 세우기 위해 양성평등적인 아버지상의 원리와 역할에 대해서 논하고자 한다. 지금까지의 이론적인 내용들을 기초로 본 연구는 양성평등적 아버지상을 위해 4가지 원리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평등(Equality), 참여(Participation), 협력(Cooperation), 그리고 관계(Relationship). 이 장에서는 이러한 양성평등적인 원리를 가지고 가정에서 아버지의 역할과 연결해서 논할 것이다.

A. 양성평등적 아버지상의 원리

1. 양성평등을 지향하는 아버지 (Equality)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남녀 양성이 평등하다는 원리에서 출발해야 한다. 가부장제에서 여성은 남성보다 열등한 존재로 여겨졌으며 여성을 남성의 소유물로 보았다. 그러한 불평등한 환경에서 여성은 남성에게 철저히 순종하고 의존하도록 강요되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열등과 우등이 없는 평등한 존재임을 확인하였다. 하나님의 형상에는 다양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인간이 하나님과 비슷한 존재로서 '하나님의 대표자' 혹은 '대리자'로 세워짐을 의미한다.[182] 하나님의 대리자로 인간은 평등한 존재임을 근거하고 있다. 특별히 하나님이 남녀를 창조하시면서 여자를 남자의 '돕는 배필'로 세우셨다.(창2:18) 여기서 돕는 베필에 대해 기존에는 여성을 남성의 '협조자(Helper)'로

[182] 김세윤, 57.

해석해왔지만 최근에는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관계인 '동역자(Partner)'의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183]

또한 나는 몰트만의 사회적 관계적 삼위일체론에서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서로 동등하게 내재하고 순환하는 관계로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한 하나님의 존재 방식은 삼위 하나님의 상호간의 평등성을 기초한 것이다.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존재론적 방식이 이러한 평등성에 있다면 그의 피조물인 인간 역시 남녀의 평등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러므로 양성평등적인 아버지상의 첫번째 원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남녀는 서로 동등한 존재로 평등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다. 나는 그러한 평등의 원리에 입각해서 상호 존중하고 배려하는 아버지상의 정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2. 아내(여성)의 자아실현과 능동적 참여를 지향하는 아버지 (Participation)

가부장제는 남성을 공적인 영역으로만, 여성을 사적인 영역으로만 제한함으로서 남성은 사적인 영역에서 무능력자로 여성은 공적인 영역에서 무능력자로 만들었다.[184] 참여는 남녀 모두 공적과 사적 영역에서 능동적이고 자율적으로 참여를 말한다. 류터는 "가정에서 어머니만 양육과 가사의 책임자가 아니라 아버지도 가사에 동등한 참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185] 전통적인 사회에서는 가사와 양육이 여성에게만 제한되어 왔다. 그러나 오늘날 양성평등적인 사회에서는 가사와 양육을 아버지인 남성에게도 동등하게

---

[183] 강남순, *페미니즘과 기독교*, 270. 1970년에 나온 영어성서 The New English Bible에서 'Partner' 수정하여 돕는 베필로 남녀 동등한 관계로 해석함.

[184] Ibid., 197.

[185] Ibid., 196.

참여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더불어 여성이 자신의 자아실현을 위해서 주체적이며 능동적으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한 보장은 사회적 합의를 통한 법과 제도적인 노력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특히 나는 여성의 사회의 참여의 영역에서 여성의 지도력을 인정하고 존중되어야 한다고 본다. 더 나아가 나는 여성이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돕는 것까지 포함되어야 한다고 본다. 여성이 사회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그러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과 법적인 기반이 조성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양성평등적인 아버지상은 아버지의 가사의 참여와 어머니의 자아실현 뿐만 아니라 여성이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에서 함께 능동적인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3. 부모로서 상호 협력를 지향하는 아버지 (Cooperation)

장상은 “성서의 전승에서 일관성 있게 발견되는 신앙의 본질로 나타나는 인간관계의 질서는 동등성과 상호의존성이다”라고 주장한다.[186] 이는 인간은 서로 동등하게 창조되었을 뿐만 아니라 홀로 스스로 존재할 수 없고 서로 의존하고 협력해야만이 존재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면서 동등함을 기초로 서로 보완하고 협력하며 살도록 하였다. 그러한 상호 보완과 협력적인 관계 안에서 인간은 존재하도록 창조되었다. 그러나 전통적인 가부장적인 문화에서 남성과 여성의 역할을 구분하였다. 아버지는 가장으로 경제적인 책임과 역할을

[186] 박용욱, 85.

강조하였고, 어머니는 가사와 자녀의 양육에 책임과 역할이 주어졌던 것이다. 그러한 구분은 서로의 영역에 침해하거나 간섭하지 않은 범위에서 적절하게 고유의 영역을 보장받았다. 이러한 이유로 서로의 역할이 명확히 구분되어 협력보다는 자신의 주어진 역할에 충실하는 것이 좋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상으로 인식되었다.

왈톤(Janet Ronald Walton)은 "상호성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는 것을 책임성"이라고 주장한다.[187] 가부장제에서 여성은 철저히 남성에 의존적인 존재이다. 가정의 모든 것은 남성인 아버지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가정의 책임은 아버지에게만 주어져 있다. 이로인해 아버지는 가정을 억압하고 지배하는 형태로 그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양성평등적인 관점에서 가정의 모든 대소사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공동 책임으로 규정한다. 공동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호 협력이 따라야 하는 것이다. 상호 협력은 서로 부족한 것을 보완하고 돕는 베필에서 발전하여 가정을 함께 책임지고 협력하는 파트너쉽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양성평등적 아버지상은 남편과 아내가 가정의 공동 책임자로서 상호 협력과 보완을 통해서 가정을 세우는 동역자로서 조화를 이루게 하는 것이다.

4. 가족들과 수평적인 관계를 지향하는 아버지 (Relationship)

가부장제에서 남녀의 관계는 철저히 위계적이고 계층적이다. 그러한 위계적 관계에서는 서로 명령과 복종의 관계로 규정된다. 이러한 관계 내에서는 건강한 소통이

---

[187] Janet Ronald Walton, *Feminist Liturgy: A Matter of Jutice* (Minesota: The Liturgical Press, 2000), 41-3. 왈톤은 페미니스트 예식은 상호적, 책임적, 그리고 관계적으로 규정하였다.

일어날 수 없다. 가정에서 이러한 위계적 관계는 불화와 상처만 깊게 할 것이다. 수평적인 관계는 이러한 위계적이고 억압적인 관계에서 벗어나 상호 존중을 회복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메리 콜린스(Mary Collins)는 "관계의 회복을 위해 그동안 가부장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대가로 유발된 여성의 고난의 이야기를 확인하고 여성의 인간됨과 가치를 확인함으로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188] 콜린스는 이처럼 관계성을 남녀 상호간의 가치성을 인정할 때 관계가 회복되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여성신학자들의 공통적 인간이해는 '관계적 존재'로서 그러한 인간은 '관계적 자아(Relational-self)'로 이해하였다.[189] 인간은 관계를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고 발견해 가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남녀의 관계 회복을 위해 몰트만의 사회적 삼위일체론에서 그 바른 관계성을 찾을 수 있다. 앞에서 논의 했듯이 몰트만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론적인 관계를 '페리코레시스'로 정의하여 상호 순환하고 내주하고 침투한다고 하였다. 이 관계는 동등적이고 공동체적인 것이다. 삼위 하나님은 상호 관계 안에서 서로 연합을 하면서 수평을 이룬다. 이러한 삼위 하나님의 존재론적 방식은 양성평등적 아버지상에 중요한 근거가 된다. 이를 기초로 나는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동등됨의 가치를 인정할 때 관계성이 회복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한 동등한 관계성 안에서 진정한 소통이 일어날 것이고, 상호간에 친밀함이 형성될 것이며, 그럴 때 서로 간에 진정한 연합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본다. 그러므로 양성평등적 아버지 상은

---

[188] Ibid. 43.

[189] 강남순, *현대여성신학*, 171.

가부장적인 위계적 관계가 아니라 서로간에 존중을 기초로 수평적이고 연합적인 관계를 말하는 것이다.

B. 양성평등을 위한 아버지 역할

가정에서 자녀의 양성평등의 가치관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가정의 분위기와 가풍과 더불어 아버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전통적인 선행 연구에서 나타난 아버지의 역할에 대해서 이향순은 아버지는 '양육자, 부양자, 가정의 화목조성자, 그리고 기본적인 훈육 및 가정과 사회의 문화전달자'의 역할을 강조하였다.[190] 이영환은 아버지의 역할을 '자녀 돌봄, 자녀의 발달적 지지, 자녀와 함께 하는 활동, 양육자로서 책임, 그리고 자원제공자'로서 역할을 강조하였다.[191] 공진수는 성경적 관점에서 아버지의 역할에 대해 '양육자, 인도자, 보호자, 영적 멘토'의 역할을 강조하였다.[192] 그러나 양성평등적인 아버지의 역할은 전통적인 아버지 역할을 넘어서 양성평등적인 아버지상의 원리를 기초로 하여 평등, 참여, 협력, 그리고 관계 안에서 설정되어야 한다. 양성평등적 아버지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가족 구성원들을 평등하게 대하는 아버지

양성평등적 아버지는 가정에서 양성평등한 가족문화를 만들어 간다. 무엇보다 기존의 가부장적인 문화와 삶을 성찰함으로써 아버지 자신이 가부장적인 것에 대해 문제

---

[190] 김윤정, "가정과 교과서에 나타난 아버지 역할의 변화" (M.A thesis,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3), 21.

[191] Ibid.

[192] 공진주, "아버지됨의 관한 연구(기독교인 아버지를 중심으로)" (Ph.D. diss, 장로회 신학대학교 대학원, 2006), 175.

의식을 갖고 그러한 모습들을 제거해야 한다. 양성의 차이를 이해하고 고정화된 성 역할에 대한 인식에서 벗어나 성 역할의 다양성을 인식해야 한다. 성에 대한 고정관념을 벗어나 바른 성 이해를 위해 자녀에게 성 역할의 경험을 나누며 남녀의 평등함을 인식하도록 도와야 한다. 남성과 여성의 사회화 과정을 통해 남성과 여성이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존재로서 열린 자세를 갖도록 도와야 한다. 또한 현재 가정에서 남녀의 차별에 따른 문제들을 나누고 어떻게 만들어갈지 바른 평등의식을 갖도록 돕는다. 특별히 재정에 관해서도 부부간에 투명하고 공정하게 소유하며, 재산을 분배함에 있어서도 서열과 남녀 차이를 배제하고 철저히 평등하게 나누도록 해야 한다.

2. 아내의 자아실현과 사회적 참여를 돕는 남편

인간은 누구나 태어나면서 자기를 실현하기를 원하는 욕구를 가지고 태어난다. 남성중심의 가부장적인 사회에서는 아내는 무조건 손해보고, 남편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긴다. 그리하여 남편의 사회적인 성공이 곧 아내의 성공으로 대변하여왔다. 아내는 그러한 남편의 성공에서 대리만족을 하였던 것이다. 여성이기에 일방적으로 희생하는 유교적인 문화 안에서는 여성은 자아를 실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누구나 자신만의 독특한 능력과 개성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다. 그러한 능력과 개성을 개발하고 실현하는 것에서 결코 남녀라는 성 차이로 인한 차별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특히 오늘날 사회는 점차 분업화, 다양화로 인하여 어느 시대보다 여성의 역할과 참여가 요구되고 있다. 여성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대 사회에서는 여성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양성평등적 아버지는 가정에서 남녀의 차별이 없이 자기를 실현하도록 도와야 한다. 특히 남편은 아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재능을 실현하도록 일하는 여성으로 자기 정체감을 갖도록 도와야 한다. 아내가 일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만들어 주고, 아내가 좋아하는 일이나 하고 싶은 일을 찾고, 그리고 자신의 능력이나 재능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3. 가정의 일을 협력하는 아버지

전통적이고 가부장적인 아버지의 역할은 자녀의 훈육자로 경제적인 책임을 다하는 것으로 그 역할이 한정되었다. 반면에 어머니는 양육자로 자녀의 양육과 가사를 전담해 왔다. 나는 오늘날 가정의 위기의 원인 중 하나가 아버지의 부재에 있다고 본다.[193] 사회가 급변하면서 아버지의 역할이 사라지면서 자녀의 양육이 어머니에게만 치우치는 경향이 심해지고 있다. 이러한 아버지의 역할의 부재는 자녀의 성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가정을 위기로 몰아가게 한다. 따라서 나는 아버지들이 자신의 역할을 깨닫고 자녀들을 올바로 이끌어 가기 위해 부부 공동 책임과 분담이 필요하다고 본다.

큐란(Dolores Curran)은 가정의 주요한 다섯 가지 기능을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가정은 경제적 생존, 안전과 보호 제공, 종교적인 신앙을 전수, 자녀를 교육하는 곳,

---

[193] David Stoop and James Masteller, *Forgiving our Parents, Forgiving Ourselves 부모를 용서하기 나를 용서하기*, trans. 정성준 (서울: 예수전도단, 2003), 88. Stoop는 아버지의 부재란 아버지의 죽음, 이혼, 버림, 무관심 등으로 아버지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이나 상태로 정의하였다.

지위를 부여한 곳이다"라고 하였다.[194] 이 다섯 가지 기능은 전통적으로 아버지에 의해 주도적으로 이루어져왔다. 그러나 양성평등적인 아버지는 부부로서 이 기능들을 공동으로 분담한다. 그러기 위해 부부간의 협력이 중요하다. 부부가 가사와 양육에 공동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협력적 가정공동체 형성해야 한다. 그러므로 양성평등적인 부부는 성에 따른 역할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가사와 양육에 관한 의사결정을 통해 부부가 분담할 수 있어야 한다.

4. 가족들을 존중하고 수평적 관계를 형성하는 아버지

가부장적인 문화에서 아버지는 권위주의적으로 가족들을 소유물로 인식하고 억압하고 지배하였다. 아내와 아이들의 개개인의 인간에 대한 존엄성이 존중되지 않고 무시되었으며 철저히 아버지의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되었다. 그러나 양성평등적 아버지는 인간 존엄성을 존중히 여기고, 여성적 가치를 인정하고 아내와 가정의 모든 일에 소통하며, 부부간에 친밀감을 형성함으로써 수평적 관계를 형성해 간다. 남성과 여성의 소통방식의 차이를 이해하고 남성의 지시적 소통과 여성의 소극적인 소통의 방식을 탈피한다. 관계를 헤치는 요인들을 파악하고 그러한 언어나 행동을 피하며 언제나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설령 관계가 문제가 생겨도 속히 회복하도록 노력한다. 특히 양성평등적 아버지는 부부와 자녀간의 관계를 원만하고 건강하게 형성하기 위해 필요한 방법을 배우고 훈련하는데 관심을 두어야 한다. 무엇보다 기독교 신앙 안에서 지속적인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통하여 가족들간 신앙의 구심점을 형성하여 진정한

[194] Dolores Curran, *Traits of Healthy Family 건강한 가정을 원하십니까?*, trans. 최도형 (서울: 엘맨, 1994), 29.

연합을 이루어야 한다.

C. 양성평등적 관점에서 본 두란노 아버지학교

지금까지 양성평등적 아버지상의 원리를 가지고 그에 따른 아버지의 역할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본 장에서는 한국 기독교의 대표적인 아버지 훈련인 두란노 아버지학교를 양성평등적 관점에서 연구하고자 한다. 두란노 아버지학교는 국내외 물론 한국 교회와 사회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두란노 아버지학교는 1995년 처음 개설 이후로 2015년 12월 31일까지 총 5,828회 개설되었고 총 306,245명이 수료를 하였다.[195] 실제로 박차실은 두란노 아버지학교 훈련으로 야기된 많은 변화에 대한 간증들이 있는데 특히 아버지학교를 통해 "아버지의 자존감 증진, 아버지 역할 수행도 증진, 그리고 가정생활 만족도 등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였다.[196] 따라서 본 연구는 두란노 아버지학교가 교회와 가정, 그리고 아버지들에게 미친 긍정적인 면과 그 내용을 점검하면서 나아가 양성평등적 원리를 가지고 두란노 아버지학교 훈련 내용을 분석함으로 아버지학교에 양성평등적인 원리를 보완하도록 제시하고자 한다.

1. 두란노 아버지학교 프로그램의 구성

두란노 아버지학교는 오늘날 가정의 문제는 아버지의 문제라는 인식에서

---

[195] 두란노아버지학교운동본부, "사역현황," http://www.father.or.kr/content/pubf.action?fn=sub/about/sub05_01&sm=010501(Accessed Jan 15, 2016).

[196] 박차실, "아버지학교 프로그램이 중년 남성의 아버지 역할 증진과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 연구(두란노 아버지학교를 중심으로)" (서울신학대학교 상담대학원 Th.M thesis, 1999), 76.

출발하였다.[197] 그리하여 "성경적인 아버지상을 추구하며 실추된 아버지의 권위를 회복시키고, 잘못 행사되고 있는 아버지의 권위를 바로잡고, 아버지 부재의 가정에 아버지를 되돌려 보내자"는 목적으로 1995년 10월에 개설되었다.[198] 두란노 아버지학교는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는 슬로건으로 "아버지의 영향력, 아버지의 남성, 아버지의 사명, 그리고 아버지의 영성"의 4가지 주제로 구성되어 있다.[199] 5주간의 만남으로 이루지는데 친교와 찬양, 저녁식사, 비디오 시청과 강의, 나눔과 간증, 예식(애찬식, 성찬식, 세족식, 촛불예식 등), 그리고 생활 실천과제(아버지, 아내, 자녀에게 편지쓰기, 아내와 자녀가 사랑스러운 20가지 쓰기, 가족들과 데이트하기, 허깅하기, 인생 사명문 쓰기 등)로 진행된다.

첫째로, 아버지의 영향력에 대해서 "신명기5장 9-10절을 근거로 아버지의 영향력이 자자손손 대를 이어간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200] 영향력 있는 아버지가 되기 위해 아버지의 4대 기능으로 "자녀들을 한 인격체로 성장시키며 전체 가족 구성원을 하나로 결속시키는 기능, 자녀들을 수용하며 인정하며 세워주는 사랑하는 기능, 자녀들의 삶을 통해서 올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하는 기능, 자녀에게 능력을 부가해서 자녀 스스로 독립된 삶을 살도록 파송하는 기능"이 있다.[201] 이러한 아버지의 기능을 잘 수행할 때 아버지로 선한 영향력을 자녀들에게 미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

[197] 두란노아버지학교운동본부,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서울: 두란노, 2002), 11.

[198] Ibid.

[199] Ibid., 14. 본 연구자도 2004년 익산 아버지학교 2기를 수료하였으며, 그 경험을 바탕으로 훈련 내용을 정리한다.

[200] Ibid., 27.

[201] Ibid., 28-29.

두번째, 아버지 남성에 대해서 아버지로서 남성은 가정을 세우고 가장의 위치를 감당하기 위한 남성됨을 강조한다.[202] 아버지이며 가장으로서 남성됨을 지탱하기 위해서 "왕, 전사, 스승, 친구" 4가지 요소를 제시한다.[203] 폭군이 아닌 어진왕으로, 부드러운 전사로, 참된 스승으로, 다정한 친구로서의 아버지됨을 강조한다. 이러한 남성됨을 상실하게 하는 원인으로 체면문화, 일문화, 음주문화, 섹스문화, 레저문화, 폭력문화의 잘못된 영향을 지적한다.[204] 여기서 과거 자신이 지은 죄를 종이에 써서 태우는 의식을 함으로써 잘못된 삶을 회개하고 새로운 다짐을 하게 한다. 그리고 아버지로서 남성됨을 회복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책임감의 회복, 성결의 회복, 지도력의 회복, 사랑의 회복"을 제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남성됨의 모델로 제시한다.[205] 이러한 아버지로서 남성됨의 회복이 곧 가장으로서 가정을 세우는 중요한 요인으로 여기고 있다.

세번째, 아버지의 사명에 대해서 다룬다. 아버지의 신분에는 아버지에 맞는 역할과 사명이 주어졌다는 것이다. 아버지에게는 "아버지는 자녀의 원천, 자녀의 지표, 자녀의 자부심, 자녀의 미래의 보장"의 4대 사명이 주어진다.[206] 이는 "아버지는 자녀들의 정신적, 물질적, 영적인 원천이며, 아버지는 자녀의 나아갈 바를 보여주는 푯대이며, 아버지는 자녀의 마음에 자랑스러움을 주며, 아버지는 신앙의 유산을 통해서 자녀의

[202] Ibid., 53.
[203] Ibid., 56
[204] Ibid., 57-58.
[205] Ibid., 59-61.
[206] Ibid., 86.

미래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207] 이러한 아버지로서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실철함으로 진정한 아버지됨을 회복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아버지이자 한 남성으로서 순결을 다짐하는 촛불예식이 이루어진다.

네번째, 아버지의 영성에 대해서 다룬다. 아버지는 가정에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해야 한다”고 한다.[208] 여기서 아버지는 가정의 영적인 제사장으로 세우셨음을 확인하게 된다. 하나님은 자신을 다양한 형태의 언어를 사용하셨지만 그중에 ‘아버지’라는 말을 가장 좋아하였으며, 아버지라는 표현에는 ‘인격’, ‘관계’, ‘생명의 원천’, 그리고 ‘사랑’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음을 강조한다.[209] 나아가 아버지의 영적인 4가지 권세를 통하여 자녀에 대한 신앙훈련을 강조한다. 아버지의 영적인 4가지 권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축복하는 권세,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치는 권세,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훈계하는 권세, 그리고 아버지의 경건한 신앙을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전수하는 권세”이다.[210] 이처럼 아버지는 영적인 지도자로서 가정과 자녀를 잘 이끌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마지막 시간에는 아내를 초청하여 만찬을 나누고, 아버지학교를 통해서 깨달은 은혜들을 간증하며, 세족식을 통해서 그동안 남편으로서 잘못한 행위들을 고백하고 아내와 진정한 회복과 화해를 이루도록 한다.

---

[207] Ibid., 87-94.
[208] Ibid., 122.
[209] Ibid.
[210] Ibid., 127-28.

2. 양성평등적 원리를 통한 두란노 아버지학교 분석과 제언

a. 양성평등적 관점에서

두란노 아버지학교는 아버지로서 성경적인 역할을 강조하면서 부분적으로 전통적인 아버지상의 이미지를 그대로 가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아버지의 영향력이란 주제에서 아버지의 역할에서 가정을 결속하는 기능이 있다. 이 결속하기 기능을 통해서 "아버지 자신의 삶의 철학과 가치관, 도덕과 윤리 그리고 삶의 방법 등을 실질적인 생활방법으로 가르쳐 결속시키는 역할"을 강조한다.[211] 다시 말해서 가족 구성원을 결속하는데 기준이 아버지이고 그 아버지의 삶의 배경과 가치관 등을 실질적으로 가르치게 함으로 성서적이고 가부장적인 아버지의 역할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음을 발견한다. 이것을 결국 아버지의 삶을 주입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여겨진다. 양성평등적 아버지는 가족을 결속함에 있어 가족 구성원의 생각과 가치를 존중하여 아버지 자신만의 가치관을 강요하거나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와 더불어 가족 구성원들이 함께 동의하고 결정하도록 한다. 그러한 결정을 가족 구성원 모두가 따름으로 이것을 기초로 가정을 결속하도록 해야 한다.

아버지의 남성이라는 주제에서는 유교적 가부장적인 남성의 이해를 그대로 가지고 있음을 발견한다. 아버지로서 "남성은 강인함, 가정을 세우기 위한 남성됨, 그리고 가장으로서 위치와 권위"를 강조하고 있다.[212] 그러면서 남성을 지탱하는 4가지

[211] Ibid., 28.
[212] Ibid., 55.

요소로 "왕, 군사, 스승, 친구"의 모델을 제시한다.[213] 여기서 왕과 군사, 그리고 스승은 다분히 가부장적인 권위자로 아버지의 역할을 상징하고 있다. 그러므로 양성평등적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부드러움, 여성스러움, 섬기는 멘토와 같은 역할을 강조한다.

아버지의 사명이라는 주제에서도 다양한 아버지의 사명과 더불어 추가적으로 양성평등적인 관점에서 자녀에게 양성이 평등하고 존엄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실천하도록 도울수 있는 사명이 있어야 한다.

b. 아내(여성)의 참여와 자아실현의 관점에서

두란노 아버지학교의 훈련에는 아버지로서 아내의 공적 참여나 자아실현에 대한 내용을 다루지 않고 있다. 주로 자녀에 대한 아버지의 역할에 집중되어 있기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거나 대안을 제시하지는 않고 있다. 그만큼 여성으로서 아내에 대한 이해나 그들의 참여나 자아실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따라서 나는 아버지의 사명이라는 주제에서 아내의 사회참여와 자아실현을 돕는 남편으로서 사명이 있음을 보완되기를 바란다. 실제로 아버지의 사명에는 자녀와 관련된 사명만 강조되어있다. 더불어 아내와 관련되어 아내의 능력을 발굴하고 개발하여 이를 기초로 자아를 실현하고 사회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권장할 수 있어야 한다.

c. 부부간의 상호 협력에 관점에서

두란노 아버지학교의 훈련에서는 위와 같이 아내와 관련되어 부부간의 상호 협력에 대한 내용이 다루어지고 있지 않다. 다만 아내에게 편지쓰기, 아내가 사랑스러운

---

[213] Ibid., 56.

20가지 이유 등 생활과제에서만 아내와 관련되어 다루고 있음을 보게된다. 이는 아버지 훈련에서 자녀와의 관계에서만 그 내용이 제한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때문에 나는 아버지와 더불어 남편으로서 가정을 공동으로 책임지고 아내와 함께 파트너십을 강조하고 보완되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양성평등적 관점에서 아버지는 가정의 모든 결정을 아내와 함께 공유하고 나누면서 함께 협력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한 협력은 서로의 부족한 것을 보완하고 채워주는 동역의식을 형성하게 하는 것이다. 아버지는 가정 경제의 책임만, 아내는 가사와 양육만이라는 전통적이고 고정적인 역할이 아니라 부부가 모두 가정의 일에 협력해야 함을 강조해야 한다.

d. 가족간의 수평적 관계의 관점에서

두란노 아버지학교 훈련에서는 아버지의 역할에서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친구의 모델로 설명하면서 수평적인 관계를 설정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214] 아버지는 자녀에게 친구처럼 아끼고 나누며 사랑하는 관계이다. 이러한 아버지는 자녀와의 수평적인 관계를 형성하게 될 것이다. 반면에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서 전통적인 위계적이고 지배적인 관계를 발견하게 된다. 아버지를 왕으로, 군사로, 스승으로 비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지극히 가부장적인 아버지상을 그대로 반영한 것임을 보게 된다. 또한 두란노 아버지학교 훈련에서는 남편과 아내가 동등하다는 인식형성이나 수평적인 관계 형성에 대해서 다루고 있지 않음을 보게 된다.

---

[214] Ibid., 56.

그러므로 양성평등적 아버지는 위계적이고 권위적인 관계는 명령과 순종의 관계, 지배적이고 억압적인 관계를 지양한다. 나아가 가족간의 관계를 수평적인 관계로 설정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족 구성원들에 대한 존중과 가치를 인정해야만 가능한 것이다. 그러한 관계가 형성될 때 진정한 소통과 연합을 이루는 건강한 가정을 이루게 될 것이다.

D. 양성평등을 기초로 한 아버지훈련에 관한 프로그램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나는 양성평등적 아버지상을 위해 4가지 주제, 즉 평등, 참여, 협력, 그리고 관계의 틀 안에서 원리를 정리하였다. 이러한 원리는 양성평등을 위한 아버지 훈련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구성하는데 기초가 될 것이다. 무엇보다 아버지 훈련에 있어서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을 형성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자 한다. 기존의 아버지학교나 훈련들을 보면 아버지로서 사명과 역할에 중점을 둠으로 가부장적인 문화 안에서 아버지 역할에 벗어나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215] 양성평등의 대한 인식의 부족은 유교적이고 기독교적인 가부장적인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여 전통적인 아버지의 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남녀의 성 차이에 따른 고정관념과 차별적인 성 역할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하나님의 형상에 기초한 인간 존엄성에 근거한 양성이 평등하다는 의식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있을 때 양성평등적인 아버지의 역할을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다고 본다.

---

[215] 치유하는교회 아버지학교의 경우 하나님과 나, 부모님과 나, 아내와 나, 자녀와 나, 이웃과 나 등의 관계 중심의 회복 훈련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가정의 가장인 아버지의 상처를 치유함으로 가족들과의 회복에 대한 강점을 가지고 있다.

1. 프로그램 설계 및 운영 계획

먼저 양성평등적 아버지상을 위한 4가지 원리를 가지고 교육목적과 전략을 수립하고 전체적인 설계와 구성을 한다. 4가지의 원리를 주제로 각각의 원리에 따른 교육의 목적과 내용, 그리고 방법, 그리고 평가 등으로 구성한다. 그리고 마지막에 훈련에 대한 평가와 학습의 이해도를 질문을 통하여 점검하고 훈련에 대한 효과적인 부분을 확인할 것이다. 또한 매주 한 주씩 각 훈련에 대한 목표와 훈련의 진행시간, 전개 과정(도입－전개-정리-나눔의 단계), 훈련 내용 및 활동, 교육자료들을 구체적으로 준비한다.

양성평등적 아버지상을 위한 훈련은 4주 과정의 훈련으로 매주 토요일 오후 혹은 일요일 오후 2시간, 일정한 장소에 서로 대화를 할 수 있는 원탁 테이블과 영상과 음향 시스템이 있는 곳으로 한다. 인원은 6~7명을 한개 조로 6개조 36~42명 이내로 한다. 진행은 식사, 찬양, 주제영상, 강의, 나눔 등의 순서로 한다. 이러한 진행을 위해 다수의 스텝이 팀별로 진행팀, 찬양팀, 식사 및 서빙팀, 방송팀 등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2. 프로그램 목적

양성평등적 아버지상을 위한 훈련 목적으로

첫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인간은 모두 평등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한다.

둘째, 남녀의 존엄성과 가치를 인식하고 남녀 모두 존중하고 서로 인정해야 함을 인식하게 한다.

셋째, 성 역할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남녀가 상호 협력해야 함을 인식하게 한다.

넷째, 남녀 모두 자신의 개성과 능력을 발휘하는데 공평할 기회가 있어야 함을 인식하게 한다.

다섯째, 남녀 모두 평등적, 수평적 관계를 이루기 위해 노력을 하게 한다.

3. 프로그램 내용 및 방법

프로그램의 내용을 단계별로 구성하기 위해 먼저 도입에서 주제에 관련한 영상을 시청하고[216], 영상과 관련된 내용에 대한 이해와 논의, 그러한 현상과 문제에 대한 성서의 입장을 살펴보고, 양성평등에 관련된 도서, 학문적인 자료들을 보충자료로 사용한다. 필요할 경우 해당 분야에 전문가들을 특별 초청하여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한다. 나아가 성서의 입장과 오늘날의 양성평등적 입장을 함께 정리하여 결론을 도출한다. 그리고 주제에 대한 실질적인 경험이나 실천을 위하여 참여자들이 나눔으로 정리하도록 구성한다. 양성평등적 4가지 원리인 평등, 참여, 협력, 그리고 관계를 주제별로 나누어 그 내용과 방법을 다음과 같이 구성하고자 한다.

a. 평등

오늘날 가부장제의 문화 속에서 이어져 온 성차별과 불평등에 대한 모습을 그린 영상을 시청한다. 생활현장에서 일어나는 가부장적인 모습, 성차별의 모습들이 무엇인지 점검해 본다. 그리고 성서는 그러한 불평등과 가부장적인 모습들을 극복하기 위해 무엇이라고 하는지 고찰해 본다. 나아가 양성평등적 관점에서 그러한 불평등을 어떻게

---

[216] MBC, “사과나무,” Jan, 2004 – Oct, 2005, (교양다큐 총83회 영상참조) http://vodmall.imbc.com/genre/genre_program.aspx?progCode=1000463100000100000(Accessed Feb 15, 2016).

극복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것인지를 인식한다. 그러한 가부장적인 것과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서로 나누도록 한다.

평등에 관한 내용을 전달할 때 다양한 방법들을 이용할 것이다. 먼저 가부장적인 단면을 잘 보여주고 있는 영상자료를 활용한다. 또한 훈련 받는 아버지들의 양성평등 의식에 대한 질문을 통해서 그들의 양성평등의 대한 이해와 의식을 파악한다. 성서의 구절과 주요 자료와 내용을 인용을 할 것이고, 주제와 관련된 나눔 질문을 주어서 서로 나누도록 한다.

b. 참여

가부장제 안에서 여성의 참여가 얼마나 제한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영상을 시청한다. 생활의 현장에서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가정에 묶여 있는 오늘날의 여성의 모습을 점검해 본다. 성서에서 그러한 제한된 여성에 대해 무엇이라고 하는지 고찰해 본다. 나아가 양성평등적 관점에서 여성이 자신의 능력과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야 함을 인식한다. 특히 여성의 지도력을 인정하고 능력에 따라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그러한 여성이 능동적인 참여를 위해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서로 나누도록 한다.

참여를 위한 훈련의 방법으로 여성의 능동적인 참여를 보여주는 영상자료를 활용한다. 그러한 능동적인 여성에 대한 성서의 모델을 찾아서 나누고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우리 사회에서 여성의 능동적인 사회참여의 실례들을 나눈다. 또한 여성의 능동적인 참여를 위한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를 나누도록 한다.

c. 협력

가부장제 안에서 여성은 남성에 종속적이고 의존적인 반면 남성은 지배적이고 권위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이로 인해 남성은 가정의 모든 대소사를 결정하며 모든 가정의 책임이 아버지에게 있다.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영상을 시청하고 이로 인한 문제점이 무엇인지 발견한다. 그리고 성서는 이러한 남성 중심의 가정 지배체제에 대해 어떠한 대안을 주고 있는지 찾아본다. 이를 기초로 양성평등적 관점에서 가정에서 부부간의 상호 주체성을 인정하고 협력적 가정공동체를 이루는 파트너쉽을 형성해야 함을 인식한다. 나아가 가정의 모든 일에 대해 부부의 공동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가사와 양육에 대해 아버지의 분담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나누도록 한다.

협력을 위한 훈련의 방법으로 부부가 서로 가정의 일에 협력하는 영상자료를 활용한다. 그러한 상호 협력적인 모습에 대한 성서의 모델을 제시하고 양성평등적 관점에서 우리 사회에서 그러한 협력적인 가정의 실례들을 나눈다. 또한 그러한 상호 협력이 주는 장점들이 무엇인지를 나누도록 한다.

d. 관계

가부장제에서 남성과 여성의 관계는 위계적이고 계층적이다. 그러한 관계에서 오는 불화와 상처들을 보여주는 영상자료를 시청한다. 그리고 성서에서 부부의 수평적 관계를 나타내는 구절과 모델을 제시한다. 나아가 양성평등적 관점에서 부부가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상호간의 가치를 인정하고, 친밀함을 형성하고, 공감적인 소통을 통해 통전적이고 연합적 관계를 형성해야 함을 인식한다. 나아가 그러한 수평적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나누도록 한다.

수평적 관계 회복을 위한 영상자료를 활용하고, 성서의 모델과 오늘날 현장에서 수평적 관계를 건강하게 이룬 가정들의 실례를 나눈다. 또한 부부간에 수평적 관계를 잘 형성하도록 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무엇인지를 나누도록 한다. 관계를 헤치는 요인들과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것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그에 필요한 훈련들을 제시한다. 특히 기독교 신앙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통하여 부부간의 수평적 관계 형성이 이루어지도록 제시한다.

4. 프로그램 평가

양성평등적 아버지 훈련을 마치고 2가지 차원에서 평가를 하게 된다. 하나는 진행하면서 얻게 된 평가들이다. 이는 진행하는 스텝들이 주체적으로 자신들의 사역들과 진행에서 오는 결과들에 대한 평가들이다. 전체적으로 진행과 준비성, 목적에 따른 훈련과 교육 내용과 방법에 대한 부분, 훈련생들의 반응, 그리고 각각의 팀들이 진행하면서 겪었던 장점과 보완해야 할 점들을 팀별로 스스로 평가하는 것이다.

또한 훈련을 받은 아버지들을 대상으로 몇 가지 평가 항목과 질문을 통해서 훈련에 대한 이해와 효과를 평가한다. 양성평등에 대한 의식이 형성되었는지, 가부장제에 따른 성차별의 문제를 인식하였는지, 왜 기독교 가정에서 양성평등을 이루고 노력해야 하는지를 인식하였는지, 양성평등의 기초가 하나님의 형상과 인간에 대한 존엄에서 시작되는 것을 인식하였는지, 양성평등을 위해 성 역할에 대한 다양성을 인식하였는지, 여성(아내)의 자아실현과 능동적인 사회 참여를 위해 남편으로서 어떻게 할 것인지, 또한

그러한 아내의 능동적 참여를 위해 기꺼이 가사와 양육에 참여하고 분담할 수 있는지, 아내와 협력적 파트너쉽을 가지고 가정의 모든 일을 아내와 공동 책임을 지고 상호 협력할 수 있는지, 가정의 구성원들과 수평적 관계를 형성하고 서로 소통하고, 친밀함을 이루고 진정한 연합을 위해 어떻게 노력할 것인지를 점검한다. 나아가 이 훈련을 통해 깨닫게 된 것과 가장 큰 인식론적 변화는 무엇이며, 가장 자신에게 영향을 준 것이 무엇인지,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가정에서 어떻게 노력할 것인지를 점검하게 한다.

V. 양성평등적 아버지를 위한 4주 훈련 프로그램

A. 1주차 훈련

주제: 평등

교육목표: 양성평등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유교와 기독교의 가부장적인 모습을 발견하고, 성서를 통한 양성평등의 원리를 찾고, 양성평등을 이루기 위한 노력과 실천을 한다.

도입: 가부장적인 문화 속에서 성불평등과 성차별에 관한 영상을 시청한다.(5분이내의 영상) 양성평등이 무엇인지 개념과 정의를 다룬다. 양성평등의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점검을 한다.

전개: a. 양성평등에 대해 성서적 관점을 점검한다. 창세기 1장 26-27절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그 자체로 존엄성과 더불어 평등한 존재임을 설명한다.

b. 양성평등의 관련한 학술적 이론에 대한 소개를 한다.

c. 양성 불평등의 원인과 문제점을 점검하고 양성평등을 이해하기 위해 성 역할의 다양성 인식, 인간의 존엄성 실현,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존재로서 서로 동등함을 인식하게 한다.

정리: 양성평등을 이해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들을 소개한다.

나눔: 우리 사회와 가정에 가부장적인 모습들이 무엇이 있는가? 우리 주변에 성역활에 대한 고정관념이 무엇이 있는가? 양성평등을 위해서 가정, 교회, 그리고

사회에서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가? 나누어 본다.

B. 2주차 훈련

주제: 참여

교육목표: 여성의 능동적 참여가 무엇인지 이해하고, 이를 위한 장애들이 무엇인지 발견한다. 나아가 그러한 장애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를 인식하고 노력하게 한다.

도입: 가부장적인 문화에서 여성의 참여가 얼마나 제한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영상을 시청한다.(5분) 오늘날 여성들이 얼마나 자아를 실현하고 사회와 가정에서 능동적인 참여를 하고 있는지 실태를 다룬다. 왜 여성의 능동적 참여가 필요한지를 점검한다.

전개: a. 여성의 능동적 참여를 위한 성서적인 근거를 다룬다.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8절에 내용에 천사에게 마리아가 성령을 통한 수태 고지를 받았을 때 당시의 가부장적인 문화적인 상황에서도 능동적으로 받아들이는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 여성의 능동적 참여를 모델로 삼는다.

b. 여성참여에 관련한 학술적 이론과 배경에 대한 소개를 한다.

c. 여성들의 능동적인 참여를 제한한 원인과 이유를 찾아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양성평등적 관점에서 여성들의 능력과 자아 실현을 위해 주체적인 참여를 도울 수 있도록 인식한다.

정리: 여성들이 가정과 사회에서 능동적인 활동과 참여를 위한 노력들을 소개한다.

나아가 여성의 지도력을 인정하고 능력에 따라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과 제도를 만들어야 할 노력들을 소개한다.

나눔: 아내의 능력과 강점이 무엇인지 찾아보고 나누어 본다. 그러한 강점을 어떻게 개발하고 발휘할 수 있을지, 남편들이 이를 어떻게 도울 것인지를 나누어 본다. 여성들이 능동적인 참여를 하는데 장애가 되는 것들이 무엇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지 나누어 본다.

C. 3주차 훈련

주제: 협력

교육목표: 부부간 상호 협력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상호 협력해야 하는 이유와 장애물들이 무엇인지 발견한다. 나아가 상호 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무엇인지 인식하고 노력하게 한다.

도입: 가부장적인 문화에서 아버지가 가정의 모든 것을 결정하고 지배하는 권위적인 모습의 영상을 시청한다.(5분) 그러한 아버지의 모습이 주는 문제점들이 무엇인지 발견한다. 왜 가정에서 부부가 함께 협력해야하는지, 그렇게 협력할 때 어떤 유익이 있는지를 점검한다.

전개: a. 부부가 상호협력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성서적인 근거를 다룬다. 창세기 2장 18절에 돕는 파트너의 관계,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협력을 모델로 삼는다.

b. 부부 협력에 관련한 학술적 이론과 배경에 대한 소개를 한다.

c. 양성평등적 관점에서 가정의 모든 대소사는 부부의 공동책임을 인식하게 한다. 가정에서 상호 주체성을 인정하고 서로의 부족한 것을 보완하며 함께 협력하는 파트너십을 형성해야 함을 인식하게 한다.

정리: 가정에서 부부가 상호 협력하기 위한 실례들이 무엇인지 실제적인 노력들을 소개한다.

나눔: 부부의 공동 협력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나누어 본다. 가사와 양육의 분담을 위해 구제적인 방법들을 나누어 본다. 상호 협력을 통해 얻게되는 유익인 무엇인지 나누어 본다.

D. 4주차 훈련

주제: 관계

교육목표: 부부간의 수평적 관계가 무엇인지 이해하고, 그러한 관계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살펴보고 실천하게 한다. 나아가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통하여 가족간의 연합적 관계를 이루도록 노력한다.

도입: 가부장적인 문화에서 부부간의 위계적이고 계층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영상을 시청한다.(5분) 그러한 관계의 원인과 결과로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를 점검한다. 부부간의 건강한 수평적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점검한다.

전개: a. 부부간의 수평적인 관계를 위한 성서적 근거를 다룬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동등적인 관계를 모델로 부부간의 수평적 관계 형성을 위한 근거를 다룬다.

b. 부부간의 수평적 관계와 관련한 학술적 이론과 배경에 대한 소개를 한다.

c. 부부간의 수평적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상호간의 가치를 인정하고, 공감적 소통과 친밀함을 형성하여 통전적이고 연합적인 관계를 형성해야 함을 인식하게 한다.

정리: 부부가 수평적 관계를 건강하게 이룬 가정들을 실례로 나눈다. 나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한 가족간의 연합적 관계 형성으로 확대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나눔: 부부간의 수평적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방법들을 나누어 본다. 반대로 수평적 관계를 헤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 나누어 본다. 나아가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 가족간의 연합적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나누어 본다.

VI.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를 통해서 나는 유교적인 가부장제와 기독교적 가부장제의 영향으로 이 땅에 남성으로 한 가정의 아버지로서 얼마나 여성을 억압하고 차별하는 가해자의 역할을 해 왔는지를 알게 되었다. 그리고 나는 가부장제의 피해자로서 여성들의 고통과 아픔을 연구를 통해 충분히 공감하게 되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남성 역시 가부장제의 문화의 또 다른 피해자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남성으로 태어나 가부장적인 문화 속에서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가부장적인 가치관과 습관으로 여성을 억압하고 차별하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이 잘못이라고 인식하기 전에 이미 형식적이든 비형식적이든 많은 한국의 남성들은 유교적 전통과 관습의 영향을 받게 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서 연구자인 나도 가부장제의 영향 아래서 여성을 비하하고 차별하는 의식이 깊이 내재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다. 나아가 목회자로서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양성평등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하였음을 깨닫게 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서 나는 여성에 대한 차별적 문화를 인식하게 되었고, 그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가정에서는 아내와 자녀들에게 평등하게 대하도록 노력하게 되었다. 나아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여성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연구를 통해 나는 우리 사회가 가부장적인 문화의 영향으로 구조적인 여성 차별에 대한 문제를 안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러한 가부장제의 구조적인 문제를 먼저 교회와 가정에서 인식하고 양성평등의 원리를 세우고 실천해 나갈 때 교회와 가정이 좀 더 건강하게 세워질 것으로 나는 확신한다.

따라서 나는 양성평등의 건강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 가부장제의 영향 아래에 있던 남성들과 아버지들을 대상으로 양성평등적인 아버지상의 원리를 기초로 하여 아버지 훈련에 관한 프로그램을 연구하였다. 이 연구를 위해 먼저 가부장제가 무엇인지, 특히 한국 문화의 뿌리인 유교적인 가부장제와 기독교적 가부장제의 모습을 점검하였다. 특히 성서의 가부장적인 요소들, 기독교 역사에서 가부장적인 요소들, 한국 기독교와 교회 안에서 가부장적인 모습들을 점검하면서 유교적 가부장제와 기독교적 가부장제가 연합하여 한국 교회 안에 가부장성이 더욱 강화된 것을 발견하였다. 우리의 교회와 가정의 현장이 바로 가부장제로 인하여 철저히 남성과 여성에 대한 차별과 억압이 있었음을 깨닫게 되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양성평등적인 아버지상을 발견하기 위해 양성평등이 무엇인지를 점검하고, 그 양성평등의 핵심적인 가치로 인간의 존엄성, 기회의 균등, 그리고 여성의 주체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양성평등을 위한 이론적 기초로 성서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존엄성을 양성평등의 원리임을 확인하였다. 양성평등적 신학적 기초로 몰트만의 '사회적 삼위일체론'을 통해 삼위 하나님이 동등함으로 상호 교류하고 순환하고 협력하는 순환론적인 일치의 관계를 통해서 양성평등의 신학적인 원리의 근거를 두었다. 그리고 양성평등적 교회론적 기초를 류터의 여성신학적 교회론인 '여성-교회'에 근거를 찾았다. 류터는 가부장적인 교회로부터 해방하기 위한 새로운 제의와 믿음의 공동체로 기존 교회의 전통을 버리지 않고 재해석하고 비판적인 성찰을 통해 현장과 신학의 끊임없는 대화의 변증법적인 노력을

통해 가부장제로부터 해방된 교회를 세우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는 이러한 이론적 기초를 토대로 교회와 가정에서 양성평등을 적용하고 실현하기 위해서 먼저 양성평등을 위한 법과 제도가 어떻게 세워지고 확립되었는지를 점검하였다. 또한 나는 양성평등이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법과 제도적인 기반이 세워져야 함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그러한 양성평등의 노력이 실현되기 위한 교회의 노력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점검하였다. 특히 감리교단과 기독교장로회의 선구자적인 노력을 확인하였다. 무엇보다 양성평등적인 교회를 위해서 그동안 간과했던 여성의 지도력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강조하였다. 교회 구성원의 다수가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여성 지도자들의 부재는 여성 불평등의 구체적인 사례로 지목하였다. 나는 이러한 여성 지도력 향상을 위하여 여성 지도자들을 일정 비율로 배분하고, 여성 지도자들을 양성하는 훈련하며, 그리고 여성 목회자들을 세워서 함께 동역해야 한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 나는 지금까지 이론적인 토대로 양성평등적인 아버지상의 원리로 평등, 참여, 협력, 그리고 관계의 4가지를 제시하였다. 이 4가지 원리를 기초로 양성평등을 위한 아버지 역할을 논하였다. 그리고 양성평등을 기초로 한 아버지훈련 프로그램을 설계하였고 프로그램의 목적, 내용, 방법, 평가 등을 구성하고 이를 기초로 4주차 훈련 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

나는 양성평등의 실현은 궁극적으로 남녀 모두 유익이며 건강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고 본다. 무엇보다 남성과 여성에 대한 존엄성을 가지고 그동안

가부장제 안에서 무시되고 배제되었던 여성의 인권과 주체성을 인식하고, 여성의 능동적 참여를 높이고 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그러므로 나는 양성평등이 실현되기 위해 몇 가지 제언을 다음과 같이 하고자 한다.

첫째, 교단 지도자들과 신학자들이 양성평등적인 신학적이고 이론적 원리들을 찾고 양성평등을 위한 정책들을 세울 수 있기를 바란다. 이를 기초로 법과 제도를 만들어 이를 실천하기 위한 다양한 훈련과 방법들을 제공해야 한다. 나아가 일반 단체와 기관과 연대하여 교단과 교회를 초월하여 사회 개혁 운동으로 함께 연대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한국교회 목회자들은 가부장적인 문제점들을 인식하고 양성평등의 신학적이고 성서적인 원리를 깨닫고 교회 안에서 양성평등이 실현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앞서 논의 했듯이 양성평등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여성 사역을 위해 여성위원회나 양성평등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체적인 실천이 있도록 해야 한다. 교회 안에 여전히 남아 있는 가부장적인 것들과 성차별적인 것들을 발견하고 제거할 수 있어야 한다. 성차별적인 설교나 언어나 행동들에 대해 세심한 주의를 해야 한다. 또한 양성평등을 위한 교육과 훈련을 지속적으로 하며 전문 사역자를 배치하고 활동하도록 한다. 연 1회 양성평등 주일을 정하여 지키며, 양성평등을 위한 사역의 정책을 수립하는 웍샵을 하며, 전후반기 각 1회 이상 양성평등을 위한 훈련을 하며, 분기별로 양성평등을 위한 세미나와 강연, 진행되는 사역들을 점검하고, 월 1회 이상 양성평등에 관한 설교를 하며, 구역이나 소그룹 모임에서 이를 위한 나눔이

진행되도록 지도한다. 양성평등을 실천한 모범적인 가정이나 소그룹, 사역들을 선정하여 시상하고 사례를 발표한다. 특히 교회 지도력에 양성평등을 위해 일정 비율 여성의 자리를 배분하고 이에 따른 예산도 배정해야 한다.

셋째, 가정에서는 남편과 아내로서 혹은 아버지와 어머니로서 양성평등의 가정을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 가부장적인 양식과 전통들을 제거하도록 부부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 양성의 차이를 인식하고 성역할의 다양성을 인정해야 한다. 그러한 양성평등의 의식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몸소 본이 되어야 한다. 재정에 관하여서도 부부가 함께 상의하며 투명하게 하고 부부간의 공동명의 소유권을 갖을 것을 제시한다. 재산을 분배할 때에도 서열과 남녀의 차이로 인한 불평등이 없도록 해야 한다. 특별히 아내의 능력을 개발하고 자아를 실현하도록 남편은 도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남편도 가사와 양육을 분담하고 협력할 수 있어야 한다. 서로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공감적 소통을 통해 서로 수평적인 관계를 형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나는 양성평등적인 아버지로서 건강한 가정을 세울수 있다고 확신한다.

Bibliography

-국내 단행본-

강남순. *페미니스트 신학.*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2004.

______. *페미니즘과 기독교.*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8.

______. *현대여성신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4.

권인숙. *양성평등이야기.* 서울: 청년사, 2007.

김경일. *공자가 죽아여 나라가 산다.* 서울: 바다, 2004.

김성묵. *아버지 사랑합니다.* 서울:두란노, 2005.

김애영. *여성신학의 주제 탐구.* 오산: 한신대학교출판부, 2003.

김양희. *한국 가족의 갈등연구.* 서울: 다산글방, 1997.

김인수. *한국기독교회의 역사.*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1997.

김영진. *한국의 아들과 아버지.* 서울: 황금가지, 2001.

박용욱, 리영자, 장상, 조옥라, 박병호, 조은, and 조혜정. *한국여성연구(1).* 서울: 청하, 1988.

손승희. *여성신학의 이해.*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9.

심미옥, 추병완, 이주한, and 서동엽. *양성평등교육.* 서울: 하우, 2011.

윤주병. *종교심리학.* 서울: 서광사, 1986.

이관규. *한국 가족의 구조분석.* 서울: 일지사, 1981.

이성배. *유교와 그리스도교.* 왜관: 분도, 2001.

이우정. *여성들을 위한 신학*.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5.

이은선. *포스트모던 시대의 한국여성신학*. 서울: 분도출판사, 1997.
______. *유교, 기독교 그리고 페미니즘*. 서울: 지식산업사, 2003.

조혜정. *한국의 여성과 남성*. 서울: 문학과 지성사, 1988.

최홍기, 김주희, 김태현, 윤택림, 윤형숙, 이배용, 조은, and 조희선. *조선전기 가부장제와 여성*. 서울: 아카넷, 2006.

아시아 여성신학 자료센타 엮음. *하나님의 형상대로*.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6.

여성문화이론연구소. *페미니즘의 개념들*. 서울: 동녘, 2015.

침례신학연구소. *교회와 여성의 리더십*. 대전: 침례신학대학교출판부, 2006.

한국가족협회. *한국가족문제 : 진단과 전망*. 서울: 하지, 1995.

-번역본-

Evans, Mary. J. *Woman in the Bible 성경적 여성관*. Translated by 정옥배. 서울: 한국기독학생회출판부, 1992.

Osmer, Richard. *Practical Theology: Introduction 실천신학의 4가지 중심과제*. Translated by 김현애. 서울: WPA, 2012.

Piper, John. *What's Difference?: Manhood and Woman Defind According to the Bible 남자와 여자 무엇이 다른가*. Translated by 송용자. 서울: 부흥과개혁사, 2005.

VonRad, Gerhard. Genesis *창세기*. Translated by 한국신학연구소.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1.

Cupitt, Don. *Reforming Christianity 예수 정신에 따른 기독교 개혁*. Translated by 박상선 and 김준우. 서울: 한국기독교연구소, 2006.

Stoop, David and James Masteller. *Forgiving our Parents, Forgiving Ourselves 부모를*

용서하기 나를 용서하기. Translated by 정성준. 서울: 예수전도단, 2003.

Curran, Dolores. *Traits of Healthy Family 건강한 가정을 원하십니까?*. Translated by 최도형. 서울: 엘맨, 1994.

Ruether, Rosemary R. *Sexism and God-Talk 성차별과 신학*. Translated by 안상님.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95.

Keyes, Mardi. *Feminism and Christianity 페미지즘과 기독교*. Translated by 신현기. 서울: IVP, 1996.

Daly, Mary. *Church and the Second Sex 교회와 제2의 성*. Translated by 황혜숙. 서울: 여성신문사, 1997.

Walter, Mekitta. *Jungen Sind Anders, Madchen Auch 양성평등 자녀교육법*. Translated by 김태영. 서울: 바이북스, 2009.

Huber, Wolfgang and Heinz Eduard Lodt. *Menschenrechte 인권의 사상적 배경*. Translated by 주재용 and 김현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2.

Hunt, Susan and Peggy Hutcheson. *Leadership for Women in the Church 교회안에서의 여성 리더십*. Translated by 이희녕. 서울: 쿰란출판사, 2000.

Grenz, Stanley J. and Denise M Kjesbo. *Women in the Church: A Bible Theology of Women in Minisrty 교회와 여성*. Translated by 이은순.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1998.

Johnson, Elizabeth A. *She Who is: the Mystery of God in Feminist Theological Discourse 하느님의 백한번째 이름*. Translated by 함세웅. 서울: 성바오로, 2001.

Moltman, Jurgen. *Erfahrungen Theologischen Denkens: Wege und Formen Christlicher Theologie 신학의 방법과 형식-나의 신학여정.* Translated by 김균진.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2.

____________. *Trinitaet und Reich Gottes 삼위일체와 하나님의 나라.* Translated by 김균진.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2.

____________. *In der Geschichte des Dreieinigen Gottes 삼위일체와 하나님의 역사.* Translated by 이신건.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8.

Poling, James N. *Understanding Male Violence: Pastoral Care Issues 교회안의 남성폭력: 목회적 돌봄에 관한 이슈들*. Translated by 박종수. 서울: 한울, 2014.

Gebauer, Karl. *Vater gesucht 아버지로 산다는 것*. Translated by 심재만. 서울: 예담, 2003.

Snyder, Howard A. *Liberating the Church: The Ecology of Church & Kingdom 참으로 해방된 교회*. Translated by 권영석. 서울: 한국기독학생회, 2005.

Russell, Letty M. and J Shannon Clarkson. *Dictionary of Feminist Theology 여성신학사전*. Translated by 황애경.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3.

-외국서적-

Walton, Janet Ronald. *Frminist Liturgy: A Matter of Justice*. Collegeville, Minn: Liturgical Press, 2000.

Ruether, Rosemary Radford. *Women-Church: Theology and Practice of Feminist Liturgical Communities.* San Francsico: Haper & Row Publishers, 1985.

-학위논문-

강영화. “양성 평등의 도덕 교육적 함의.” 미간행 M.A. thesis,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2003.

공진주, “아버지됨의 관한 연구(기독교인 아버지를 중심으로).” 미간행 Ph.D.diss., 장로회 신학대학교 대학원, 2006.

김윤정. “가정과 교과서에 나타난 아버지 역할의 변화-양성평등을 중심으로.” 미간행 M.A. thesis,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3.

배유경. “여성주의 관점에서 본 한국 양성평등교육에 관한 연구.” 미간행 Ph.D.diss.,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5.

박차실, “아버지학교 프로그램이 중년 남성의 아버지 역할 증진과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 연구(두란노 아버지학교를 중심으로).” 미간행 Th.M thesis, 서울신학대학교 상담대학원, 1999.

서동신. “창조론 안에서의 하나님의 성 이해.” 미간행 Th.M. thesis, 협성대학교 신학대학원, 2012.

안종기. “유교의 인간론에 관한 연구 – 기독교 인간론과 비교하여.” 미간행 Th.M. thesis, 서울신학대학 신학대학원, 1986.

유선경. “부모의 양육태도 및 양성평등의식과 성지식·성태도와의 관계.” 미간행 M.A. thesis,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2010.

임수정. “가부장적 한국교회에 대한 여성상담적 제언.” 미간행 Th.M. thesis, 감리교신학대학교 대학원, 1997.

정종균. “유교가 한국 개신교 신앙에 끼친 영향.” 미간행 Th.M. thesis, 장로회신학대학 신학대학원, 1993.

최현숙. “한국교회 여성의 지위향상과 역할 개선에 관한 연구.” 미간행 Th.M. thesis, 백석대학교 기독교전문대학원, 2014.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양성평등문화 정착을 위한 아버지교육 프로그램 개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009.

-정기간행물 및 기타 학술지-

김모란. “양성평등적 목회를 위한 여성지도력 연구.” In *한국여성신학* vol.77 (2013), 92-116.

김세윤. “성경은 남성과 여성의 관계에 대해 무엇이라고 하나.” In *목회와 신학* vol.179 (2004), 56-71.

김은혜. "양성평등을 위한 새로운 한국교회 여성운동." In *한국신학여성.* vol. no. 69(2009). 11-35.

김애영. "한국교회의 갱신을 촉구하는 여성신학." In *여성신학과 한국교회.* vol. 14 no. 1 (1997). 270-98.

김양희. 이수연. "한국형 남녀평등의식 검사 개발." In *여성연구.* vol. 63 no.1(2000). 136-56.

김영광. "남과 여의 동등성에 관한 신학적 고찰." In *목회와 신학.* vol. no. 179(2004). 121-27.

박선영 외 1인. "부모의 양성평등의식 및 유아 양성평등교육 요구도 조사." In *유아연구.* vol. 19 no.1(2006). 99-117.

박보경. "가부장제와 페미니즘을 넘어서는 여성상." In *목회와 신학* vol. no. 179(2004). 106-13.

박충구. "성차별 문화와 한국교회(Ⅰ)." In *기독교 사상.* vol. no. 434 2월호(1995). 148-69.

배현주. "성 차별 관습을 벗어나는 교회." In *교육교회* vol. no. 152(1988). 985-92.

양미강. "러티 러셀의 Church in the Round." In *한국여성신학.* vol. 봄호(1996). 68-71.

윤종모. "여성문제와 목회상담(2)" In *기독교사상.* vol. 11월호(1992). 199-206.

이난희. "삼위일체론에 대한 여성신학적 연구." In *한국여성신학.* vol. no. 67(2008). 52-73.

이재옥. "유아교사의 성역할 인식과 양성평등교육 요구에 관한 연구." In *한국교사교육.* vol. 16 no.2(1999). 217-37.

임정혁. "위르겐 몰트만의 사회적 삼위일체론과 양성평등." In *한국여성신학.* vol. no. 74(2012). 97-137.

장상. “성서의 여성관.” In *기독교사상.* vol. no. 239. 5월호(1978). 44-51.

최혜영. “성서의 여성 리더십.” In *인간연구.* vol. no.6(2004). 174-92.

한국염. “왜 아직도 양성평등적 교회를 말하는가?” In *한국신학여성.* vol. no. 69.
7월호(2009). 36-55.

한완상. “여성을 차별하는 한국교회.” In *기독교사상.* vol. no. 239. 5월호(1978). 18-22.

함인희. “현대사회 아버지 상의 재발견 가족과 문화.” In *한국가족문화학회* vol. 2 no.
여름호(1997). 1-24.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양성평등실현으로 건강가정만들기.” In 교*육자료집.* edited by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서울. 2005). 7-13.

-기타 자료-

박봉배. “전통문화의 변용과 기독교.” In *한국사회와 교회.* 이원규편저. 서울: 나단,
1989.

기장양성평등위원회.*한국기독교장로회양성평등실태조사보고서.* 서울:
한국기독교양성평등위원회, 2010.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양성평등과 촉진에 있어서 남성과 남아의 역할”.
한국여성개발원, 2005.